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花柳病을退治하라

—豫防과取締法規가必要—

一

所謂 現代文明의 三大病이라 하는데에 肺結核、神經衰弱、花柳病이 잇다. 이것은 近代產業文明의 發達에 따라 全世界的으로 蔓延한것이나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이의 撲滅에 着手하야 漸次 減衰하야가는 形勢에 잇다. 그런데 朝鮮에서는 이와 反對로 年年 增大하야 民族的 社會的 重大問題化한것은 숨길수 업는 事實이다. 肺結核、神經衰弱에 對해서는 暫時 이것을 論外로 삼고라도 花柳病에 對한 統計를 보면 지난달 鐘路署에서 檢查한 妓生 八百四十名에 對하야 一割이 花柳病患者라 하니 그 全般的影響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잇슬것이다.

二

花柳病에는 淋病、淋疾、梅毒、橫痃의 三種이잇는데 三者 다 治療가 困難할뿐아니라 一次 保菌하면 他病을 併發하야 무서운 結果를 齎來한다. 그뿐아니라 이 病은 性行爲를 通하야 傳染되므로 곳 夫婦間에 影響하고 生殖機能을 侵犯하므로 減產、斷產 乃至 不具者를 產하는 民族的 社會的 重大問題를 이르킨다. 都市文明의 發展에 따라 產兒率이 減退되는 原因의 하나는 確實히 이에 잇슬것이다. 그러므로 文明各國에서는 이에 對한 豫防法을 宣傳 實施하고 學校及 社會에서 敎育할뿐아니라 法規를 制定하야 花柳病을 他人에게 傳染시킨者는 告發에 依하야 體刑又는 罰金刑에 處하기로 되어잇다.

三

도리켜 朝鮮의 花柳病에 對한 對策을 보면 거이 放任狀態다. 當局은 藝妓에 對하야 賣淫을 制하고 娼婦에 對해서 檢黴의 制度를 쓰지만 藝妓、妓生들이 賣淫을 하고잇는것은 公公然한 秘密이다. 그러므로 妓生들이 娼妓보다 一層 花柳病을 가질 憂慮가 만흐니 이것은 鐘路署에서 檢查한 結果에 비추어도 알수잇다. 그러므로 花柳病을 退治하라면 豫防에 對한 知識과 方法을 宣傳、實施하고 保菌者는 接客業을 禁止하고 萬一 이것을 傳染시킬때에는 被害者의 告發을 기다려 體刑又는 罰金刑으로써 對하는 嚴密한 取締를 斷行함이 可할것이다.

四

性知識을 普及、宣傳함으로써 도리혀 靑少年의 好奇心을 刺戟하야 도리혀 風紀上 紊亂을 招來할 憂慮가 업는바 아니지만 이것을 숨겨가지고 內面으로 恐怖할 健康問題를 이르킴보다는 나흘것이다. 도리혀 性敎育을 普及시키고 그리고 各自 이에 對한 警戒를 게을리아니하고 또 法規로 嚴重히 取締하야 이것을 防止하는것이 그 効果上으로 보아 一層 나흔바 잇슬것이다. 그것은 歐洲諸國에서 行하고잇는 產兒調節法의 國家的 許可로서 良好한 結果를 엇고잇는것으로 보아 알수잇다. 當局의 愼重한 考慮를 促하는 바이다.

英米中三國間에 米中航空連絡協定

英政府의香港連絡提供으로 日本側은重大關心!

【上海二十八日發同盟】米中航空連絡에 對하여는 일즉 中國航空公司總經理兪鴻鈞氏와 汎太平洋會社極東支配人 빅스바氏가 香港에 赴하야 英國側香港政廳當局과 交涉中이든바 最近英、米、中三國間에 原則的協定大綱이 成立되엿다고 確聞한다 그리고右協定骨子는

一、米中航空連絡은 桑港、上海間으로함

一、其中汎太平洋會社所屬機는 桑港、香港間을連絡하고 香港上海間은 中國航空公司가 分擔함

一、英國은 香港에 米中航空連絡을爲하야 에아포켓트 格納庫其他 必要한 一切의設備를行할것을 承認함

한다는것인데 細目協定에對하여는 英米中三國間에 協議를 繼續하고 잇슴으로 全線의 連絡開始는 數個月後에 實現될터이며 上海 香港間만은 來月一日부터 開始될模樣이다

香港使用代償으로 航空路延長企圖

英、極東制空權獲得劃策

【上海二十八日發同盟】英國側이 米中連絡의 中繼地로 香港을提供한 代償으로、英國도 인떠리…

【香港二十八日同盟】聞한則 英國政府當局은 米中航空連絡의中繼地로서 香港을 使用하는데 同意한 代償으로 英帝國航空路를 上海까지 延長할件을 中國側과 交涉中이다 또過般칼데코트香港總督이 廣東에서 蔣介石氏와 會見한時에 新嘉坡空軍司令스미드 大佐도 廣東에서 蔣介石氏와會見하야 英帝國航空路、新嘉坡香港線開始를 爲하야 푸라타스島(東沙群島中의一部)에 飛行機의 着陸地點開設의 承認을 求하고 同島에 飛行場無電設備其他英國空軍의손으로 行할旨의 諒解를 求하고잇다 英當局에서는 右는 旅客機燃料補給을 表面理由로하면 現在香港、新嘉坡線에 使用하고잇는 旅客飛行機는 그間燃料補給을 專門家의 見解에依하면…

航空協定의新例

列國의對中航路獲得戰

【上海廿八日發同盟】中國航空公司의 上海廣東線을 香港까지延長함으로서 米中航空連絡을 實現한것은 今日의 協定中 가장 注目할만한點인데 列强은 川越張群交涉의 進展에 伴하야 日中間의連絡이 不遠한 將來에 具體化될것을 豫想하고 모다 航空路權을 新하고잇다 特히英國은 임페리알·에아·웨이의 彼南香港線을 上海까지 延長하려고 計畫하고 米中兩國當事者가 香港中繼案을 英國側에 交涉하엿슴에도 逆으로 英國線의 延長案을 提議하야 交涉이 停屯에 陷한 事實이 잇섯다 그리고 佛國도 亦是 佛機를 使用하는 河內 廣東間의 航空連絡을 强要하려 하는데 這間에 中國側은 可及的 各國 飛行機가 中國國內에서 飛行하는것을 防止하려 함으로 最初의 問題로 中國領土內侵入을 防止하는 態度를 取하야 表面米國機의 中國航空公司線에 繼續하야 中國 南洋의 制空權을 把握하려는 要求는 이次에 具體化하다고하고잇스며 無制限飛行은 困難하다고하고 無中斷으로 援用한 米中連絡을 實現한것은 今後各國과의 間에 締結되는 航空協定의 新例가 되리라하야 注目되여잇다

차노伊外相 維也納訪問決定

【維也納廿七日發同盟】伊太利外相 차노伯은 墺太利外務次官 스미트博士의 訪問에 對한 答禮를 兼하야 伊、墺、匈三國會議에 出席하기 爲하야 來十一月九日 維也納을訪問하기로 決定하엿다

南總督雄基到着

【雄基電話同盟】二十七日夕 古茂山에서 自動車로 淸津에도라온 南總督은 三橋警務局長의 一行과 同夜國際호텔에 宿泊하고 二十八日午前八時부터 官民에게 接見하고 府廳에서 官民에게 接見後 同十時淸津發 列車로 雄基에向하야 午後零時十五分 雄基驛着 後 午後三時三十分雄基邑事務所에서 官民에게 訓示하고 午後四時十分 港灣을視察하고 同四時五十分大和旅館에入하엿다

西首都食糧缺乏 市民飢餓에直面

政府軍과叛軍大激戰

【나바르가르네라 二十七日發同盟】二十七日政府軍一隊는 나바르가르네라의叛軍에 砲擊을 加하야 兩軍間에 大激戰을 展開하얏는데 叛軍은 砲兵隊탕크隊裝甲自動車隊、飛行隊가 出動하야 드듸여 政府軍을 擊退하엿다 한다

【다라베라·데·라이나二十七日發同盟】뉴욕·헤랄드·트리뷴紙 特派員미니키、유피特派員 고래로 뉴스·크로니클紙特派員 위버의 三氏는 二十六日 마드리드南部에서 進擊中의 叛軍에 逮捕되엿는데 二十七日前 三氏는 마드리드狀況에 對하야 各各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마드리드는 只今 飢餓에 瀕하고잇다 食糧은 制限되고 肉類、砂糖、커-피等도 大略 다 업서젓다 또首都周圍에는 塹壕를 파놋엇스나 極히엿튼것이오 首都攻擊에 逢着하면民衆은 아마 抵抗치안코 逃亡할것임으로 首都는 卅日以內에 陷落할것이다

葡萄牙政府서 叛軍政府正式承認

【倫敦二十七日發同盟】葡萄牙政府는 二十七日 부르고스西班牙叛軍政府를 正式으로承認하엿다고 報道가 傳한다

但葡萄牙大使館當局은 右報道에關하야否定도肯定도하지안는다

最後까지首都防衛

西班牙首相壯丁에動員令

【마드리드二十七日發同盟】叛軍의 猛擊에 支탱할수업시 政府軍은 二十七日午後 首都의 外廓陣地 그리니요 도레도와 카라반첼 사이다 도레혼·데·벨라스코를 放棄하고 마드리드南郊十一…의 달라村에陣地를 構築하엿다 딸라村뒤를 政府軍의 所謂 勞働義勇軍이 後援하고잇는데 카바리에로 首相은 二十七日 閣議를 開하고 首都를 防衛하기로 決定하고 二十歲以上四十五歲까지의 壯丁에게 動員令을 下하엿다고 傳한다 그리고 首相은 內閣改造를 斷行하야 勞働總同盟 代表를 入閣시켜 左翼戰線의 强化를 圖할方針이라 한다

本社參觀

▲泰仁公立普通學校生徒五十二人 朴政東氏引率下本社見學

人事·集會

▲徐椿氏(本社主筆)江西、殷栗方面에講演次二十八日午後十時五十分京城驛發列車로北行

二十九日觀艦式盛儀

艦隊航進御親閱

御召艦은卽日橫須賀에

【神戶電話同盟】昭和十一年特別大演習觀艦式은 帝國海軍의 精銳百八隻을 網羅하야 二十九日阪神沖一帶의 和泉灘海上에서 壯重華麗히擧行되는데 大阪灣은 神武天皇御東遷의最初의 御上陸의聖地이오 古來水軍의 去來頻繁하고 明治元年三月廿六日 明治天皇이 御親政最初의 御行事로서 肥前、肥後、久留米、長州、藝州、薩州各藩의 藩船六隻 二千四百五十餘噸을 天保山沖에 集合하사 御親閱하사 最初의觀艦式을 行하신以來七十年 今回는 第十七回目에 該當한中 七回째로 該當하야 阪神沖에서의 觀艦式은 昭和五年神戶沖觀艦式以來의 盛儀이다 今上陛下의 御親閱은 第五回에 參加한 艦艇은百八隻 約六十萬噸 參列飛行機數도 未曾有의 多數에 達할 豫定으로 海軍의 第一線兵力의 大部分이 水上部隊、飛行機隊의 順序로 最初의 航進觀艦式의 御親閱을 仰하는 것이다 即當日 縱列은 御召艦의 東側을 陸奧를 先頭로한 臨時編成第四艦隊 縱列은 長門을旗艦으로한 聯合艦隊 第一列中間을 御通過하압시고 艦隊의 旋治陣形을 御親閱하압시사 이等將士의 登舷式、君代萬歲의 奉祝을受하압실 御豫定으로 御召艦은午前十一時御拔錨、演習指揮官以下에 對한 賜謁、御講評、賜饌等을終了하신後 同日午後二時四十分 橫須賀에 向하야 御發航하압신다

第二十師團秋季演習

觀兵式擧行

今日龍山原頭에서

京城에서 一夜를보낸 秋季演習參加全將兵一萬의精銳는 二十八日早朝부터 秋霜을밟고 續續 龍山練兵場에 集合하야 步兵七七、七八、七九、八〇、工兵二〇、師團通信隊、野砲二六、騎兵二八 特科隊의順序로 各其軍旗를 先頭로整列 第二十師團秋季演習의 最後를裝飾하는 觀兵式은 三宅第二十師團長統監、諸兵指揮官山下第四十旅團長統裁下에 盛大히 擧行되엿다 當日午前十時 統監三宅第二十師團長은 馬上에 幕僚를거느리고 來場 喇叭 君代의 吹奏裡에 各部隊의閱兵을 終了하고 同十分 各部隊가 分列隊形에 移하는同時에 三宅統監은 觀閱臺에올라 步武堂堂한 分列行進을 觀閱하매 式場東側上空으로부터 南北方으로同하야 十數臺의飛行機가 上空에서 分列式에參加、空陸呼應의 分列式은 同十一時에 終了되엿는데 秋陽이 燦爛한 龍山原頭에 皇軍의 意氣는 壯觀 그것이엿다 當日의 參觀者는 小磯軍司令官 大野政務總監 佐枝軍參謀長以下軍部諸將 總督府各局長等을爲始 學生 生徒其他一般觀覽者는 無慮二萬에 達하엿다 그리고 正午부터 龍山偕行社에서 全將校官民有力者約二千名參列下에 野戰式祝宴을 開하엿다

米國大統領選擧戰 (1)

韓普容

十一月의 첫火曜日인 十一月初三日! 一週日을 압두고 切迫한 이날은 每四年만에 한번식잇는 米國大統領選擧日로 米洲四十八州는 勿論 全世界가 모다 그選擧結果에 注目하는날이다. 大統領選擧란 唯獨 米國에만잇는일이 아니언마는 온世上에서 米國大統領選擧에 보다 더 注目하고 보다더 關心하고 興味를가지게되는 理由는 北米合衆國은 現在 强하기가 世界一로 自他가 是認할만큼되여잇는 關係上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世界多數國이 이나라政策如何에 影響되는 까닭도 잇겟지마는 이外의 또한가지 重要한 理由는 米國國民은 元來選擧때만되면 남달리 떠드는 氣質을 가젓는데다가 요즈음와서는 現代科學의 尖端的利器와 그들이가진 全智能을 總動員하야 넌센스劇 멍키-비지네쓰 其他 온갓方法의 奇拔的 宣傳戰術로 온世上을 騷亂케하므로 全世界사람은 (或은求景삼아 或은) 하도시끄러워서 한번 아메리카便을 바라보게쯤 되엿다.

『빵보다도 스포-츠!』는이것은 양키-國民이 얼마나 스포-츠에 熱狂的인가를 表示하는 말이어니와 米國國民은 이제 民主黨對共和黨-루-즈벨트對랜든게임을 一週日아페두어스니 그들의 興奮과 勇躍은 方今 正히 그 클라이막스에 達하엿슬것은 勿論이다.

이번選擧에잇서서 한가지特徵이 되여잇는것은 選擧民의關心點이 루-즈벨트냐? 랜든이냐? 또는 民主黨이냐? 共和黨이냐? 하는 對立에잇지안코 루-즈벨트及 그의 政策뉴-딜에 贊成이냐? 또는 反對이냐? 하는 이問題에 잇는點이다. 이點으로보아 現大統領 루-즈벨트氏의 巨物的 偉大性을 認定할수 잇는것은 事實이나 他面에잇서 랜든氏는 分以上의 投票를어들수잇는 有利한立場에 서게되는것도 事實이다. 웨그런냐하면 뉴-딜政策에 反對한다는말은 곳 랜든氏에게 贊成한다는말이 될수업슴에도 不拘하고 其實에잇서서는 그와同樣의 結果를 獲得하게 되는까닭이다.

이러한關係로 今回選擧戰에잇서서 民主黨側의 宣傳은 뉴-딜政策에 基因한 現政府의 業績을 自畵自讚하므로서 大宗을삼고잇슴에反하야 共和黨側은 루-즈벨트乃至 그의政策 뉴-딜攻擊으로써 選擧戰術의 極致로삼는다. 그리하야 共和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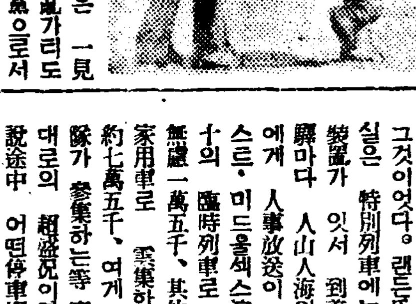
빵보다도 스포-츠

米國民의特有性

스포-츠中 가장 빅게임인

選擧戰의넌센스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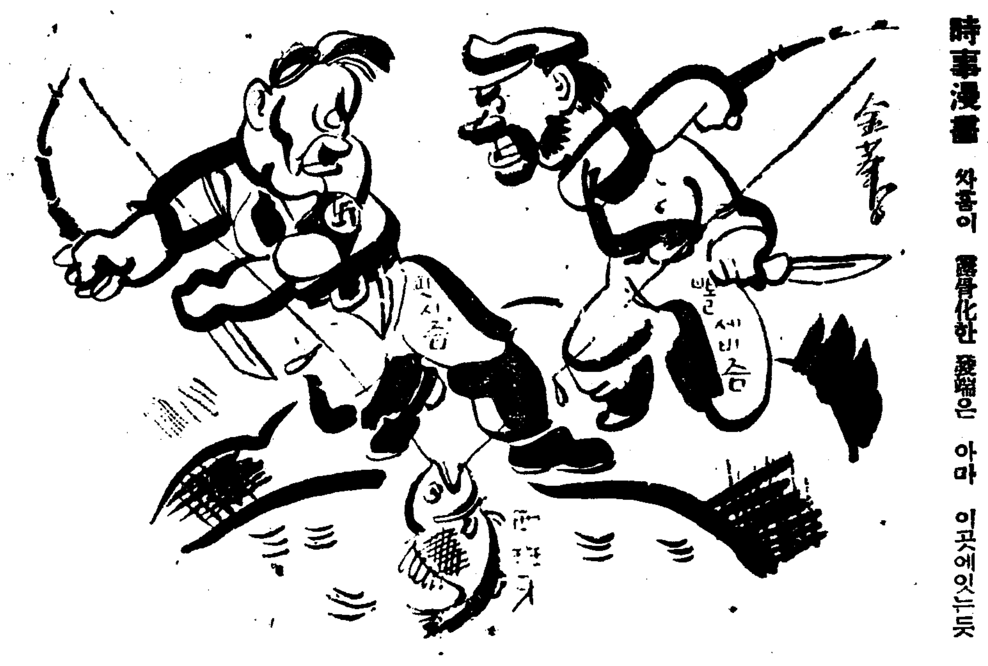
『아이듸어멘』即 랜든知事의 所謂智囊들이 가장有効한 選擧戰術로 案出하여낸 宣傳方法은 獸肉店頭에 黑板을세우고 每日每日의 肉價를記錄한 그여페 肉에對한 現政府의 稅金을記入하야 이리로出入하는 家庭婦人들에게 一封度 四十五仙의 牛肉을사는데 十五仙이라는 稅金이걸려잇다는 數字를보이고 루-즈벨트政府가 民衆에게 얼마나 過重한稅金을 課하고잇는가를 認識시키는同時에 如斯한政府의 存在는 하로밧비 解消치안흐면안되겟다는 觀念을 家庭으로부터 全國民에게 付植시키려는데잇다. 또그들은 一千弗의懸賞으로「나는 웨루-즈벨트를 贊成하는가?」하는 理由를 募集한다. 共和黨에서 反對黨인 民主黨루-즈벨트에對한 贊成理由를 懸賞으로 募集한다는것은 一見 米國人의 好事的 作亂가티도 보이나 여게는 共和黨으로서는 民主黨側의 現政策中 어느部分이 國民의 人氣를 끄는가하는 點을 適確히 아러가지고 그에對한 對策을 硏究하려는데잇다.



아메리카의 選擧騷動은 이러한程度로 끄치는것이아니다. 選擧해(年)만되면 人氣投票니 스추로보-트(模擬投票)니하야 그해정월부터 벌서 야단이다. 六月까지는各黨에서公認大統領候補選出同盟으로 야단벌석이고 六月의 全國黨大會에서 公認候補가 選出되면 인제 本格的 選擧騷動이 開幕된다. 六月十一日 크리-브랜드共和黨全國大會에서 大統領公認候補로 指名된 캔사스州知事 알프레드·랜든氏는 八月下旬에 全國遊說의 길을떠나 同二十二日 펜실베니아州 워스트·미드올섹스에서 第一回 政談演說을 開始한後 來三十一日의 센트·루이演說을 最後로하고 토피카(캔사스州首都)自宅에 도라가 고요히 十一月三日의 結果를 기다리겟다하나 그가 全國을遊說하는동안 到處에서 演出된 選擧(歡迎)騷動은 外國에서는 想像할수업는 熱狂亂舞 그것이엿다. 랜든氏遊說一團을 실은 特別列車에는 特別放送裝置가 잇서 到着되는 重要驛마다 人山人海의 歡迎群衆에게 人事放送이 잇섯고 웨스트·미드올섹스演說에는 二十의 臨時列車로 모혀든群衆은 無慮一萬五千、其他 뻐스 自家用車로 雲集한數 合하야 約七萬五千、여게 五十餘의樂隊가 參集하는等 實로 글字 그대로의 超滿員이엿다. 또 遊說途中 어떠한停車場에서는 共和黨의 象徵인 코끼리(象)새끼를『獻上』하고 오하이오州 一都市를 通過할때에는 堂堂히 二十一發의 禮砲로써 歡迎하게되엿는데 二十一發의禮砲는 大統領의境遇에만 發射할수잇다는 民主黨의 抗議로 三發、十七發、一發로 三回에 分하야 發射하엿다는것이 더욱 滋味잇는 事實이다.

=寫眞= 上은 民主黨 大統領候補 프랭클린·루-즈벨트氏 中은 共和黨大統領候補 알프레드·랜든氏 下는 共和黨의 象徵인 코끼리君

=續=



時事漫畫 싸홈이 露骨化한 發端은 아마 이곳에잇는듯

日本漁船出獵에

米加當業者에影響?

【시야들二十七日發同盟】日本漁船의 알라스카近海出漁는 米國及카나다漁業界의 重大問題로되여잇는데 아메리카聯邦漁業委員 프랑크·런벨氏는 右에對하야 二十七日 左와如히 말하엿다

六隻의日本漁船은 알라스카鮭罐詰業의 中心地인 브리스톨灣沖三浬以上을 離한公海에서 表面蟹獵의風을 裝하면서 鮭의漁獲을하엿다 最近 日本漁船이 자조 알라스카近海에서 鮭漁에 從事하고 잇슴으로 알라스카鮭는 全滅의危機에 直面하엿다 米國漁業界는 至急對策을 講究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佛蘇相互援助條約 再檢討要請

佛國上院에提出

【巴里二十八日發同盟】白耳義皇帝 레오폴드三世가 中立宣言을 發表한 以來 佛國國內에 蘇聯政府와의 軍約關係放棄를 主張하는 意見이 漸次擡頭하게되엿는데 베르사이유議長알리에氏는 마침내 上院에 佛蘇兩國間의相互援助條約再檢討를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提案理由는左와如하다

蘇聯政府와 相互援助條約을締結한結果 佛國政府의 地位는甚히 惡化되엿다 佛白兩國間의 同盟이 破毁된 重要原因도 右相互援助條約에잇다 佛國政府는 此等事實에 徵하야同條約의 再檢討를 加하기를要請한다

夕刊後市況 廿八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二四〇	(一〇低)
鐘新	一八七九〇	(三〇低)
日產	八四八〇	(一〇低)
東新	一四一〇〇	(四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 先限 七八三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三三〇 先限 六一六〇

今日本紙朝刊 夕刊合十六面

保險料가斷然低廉하다

愛國生命

保險料의高低

保險料의 高廉한것은 會社側으로서는 實質上으로는 조키는하나 加入者側으로보면 低廉할수록 有利하다는것은 再言할必要가업다 保險料가 低廉하면그만큼 百圓이나 二百圓이나 加外로 保險을 부칠수잇다

利益配當의是非

生命保險은 利益配當이어서 保險料가 가장 低廉한것이 理想的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더욱이 勤勞所得階級으로서는 將來에잇서 漸次保險料의 輕減되는것은 大端한 바람이잇슬것이니 이點에서 生覺하면 利益配當附가되는것도 必要한것이다 그러면 將來不安定한 利益配當을 看過하야 契約初에 必要以上의 高騰한 保險料를 支拂할수업슴은 賢明之策이아닐가

我社의主張

愛國生命은 極히 低廉한 保險料로 可及的 多額의 契約을 맛는同時에、將來의 保險料의 負擔을 充分히 輕減할수잇는 利益配當附生命保險의 普及에 多年努力을 傾注하야 왓다 今後도 生命保險을 理想的으로 實現키爲하야 此主張을 一貫할 決心이다.

我社의保險料와 利益配當

利益配當 愛國生命은 保險料가 非常히 低廉하고 또利益配當이 多大한 新種養老保險을 實施한以來約十五年、契約者各位의 絶大한贊同을 어더고잇다、이에 低廉한 保險料와 豐厚한 利益配當의 概要를 摘錄하야 諸位의 參考에 供코저한다、新種養老保險金萬圓 (卅年滿期加入年齡三十歲)의 保險料는二百八十九圓이라는 極히低廉한것이며 右에對하야 昭和十一年度에잇서 實施될利益配當은 左와如하다

第一回目配當 (昭和六年契約) 二一·九〇円…保險料ノ七分六厘
第二回目配當 (昭和五年契約) 二八·八〇…保險料ノ一割
第三回目配當 (昭和四年契約) 三六·〇〇…保險料ノ一割二分五厘
第四回目配當 (昭和三年契約) 四三·四〇…保險料ノ一割五分
第五回目配當 (昭和二年契約) 五一·一〇…保險料ノ一割七分七厘
第六回目配當 (昭和元年契約) 五九·三〇…保險料ノ二割五厘
第七回目配當 (大正十四年契約) 六七·一〇…保險料ノ二割三分二厘
第八回目配當 (大正十三年契約) 七五·〇〇…保險料ノ二割六分
第九回目配當 (大正十二年契約) 八三·一〇…保險料ノ二割八分八厘
第十回目配當 (大正十一年契約) 九一·六〇…保險料ノ三割一分七厘

本社·東京·日比谷 社長 原邦造

朝鮮支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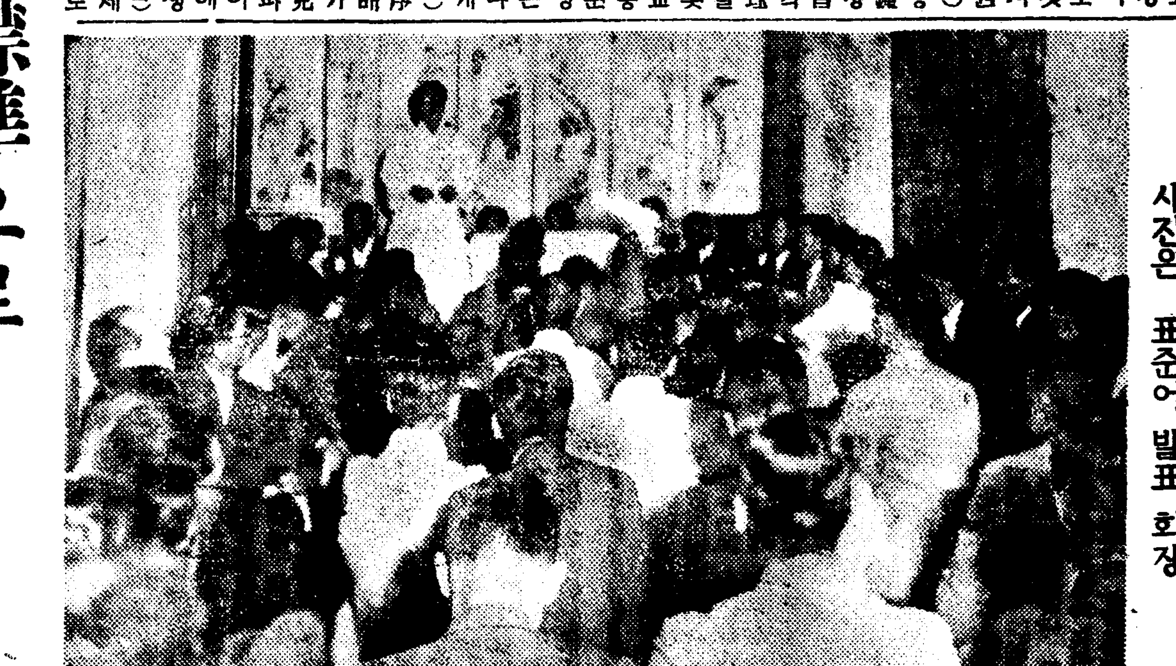
百餘名士會堂席上 標準語查定發表

燦然! 朝鮮語學會의偉功

昨日한글頒布記念式에겹친歷史的慶事

盤石우에선朝鮮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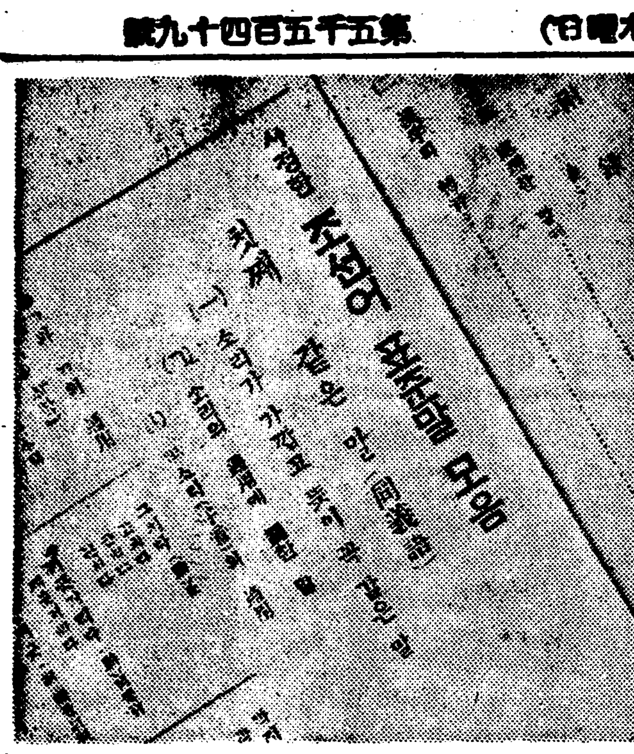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주최의한글발포제사백구십회긔념식과사정한조선어표준어발표식은예정대로 이십팔일오후 여섯시에 시내천향원(天香園)에서리종린(李鍾麟)안창호(安昌浩)유각경(兪珏卿)씨들을 비롯하야 교육계 종교계 문예계 언론계관계자가다 각계명사 일백사십여명의 참석으로근래에 보기드물게 성대히열렷다 리만규(李萬珪)씨의 사회로개회하야 첫재로 리병기(李秉岐)씨의 훈민정음서문(訓民正音序文)랑독이잇고 다음으로 최현배(崔鉉培)씨의 간단한 긔념사가잇고 그다음으로 리극로(李克魯)씨로부터 표준어 사정경과(査定經過)를 보고하엿는데 이 사정한 표준어가 성안되기까지에는 사정위원 칠십삼인의 희생적노력도 크거니와일독회(讀會)이독회 삼독회를계속하야 정세권(鄭世權) 한상억(韓相億)김도연(金度演) 정인승(鄭寅承)제씨는 다대한 비용을 담당하엿고 또 이번에 발표한 「표준어모음」을 발간하는데에는 김용기(金容起)씨가 비용전부를 부담한공적도 만타고보고하엿다 다음으로 리윤재(李允宰)씨는 표준어내용을 간략히설명하고 래빈축사로 리종린(李鍾麟)홍(洪)에스터 안창호(安昌浩)제씨로부터 의미깁고 열렬한 축사가잇섯다 그리고 각지로부터온 축전(祝電)과 축문(祝文)을 피로하고서 오후일곱시반에 무사히폐회하엿다 회를 마치고 일동은 식당에 모혀서 성황으로만찬회를 열엇다



사진은 표준어 발표 회장

서울말標準으로 語彙總數八千餘

菊判百廿二頁에알알이백인 조선어표준말모음



발포한 「조선어표준어모음」은 전부 일백이십이폐이지로서 동의어(同義語)근사어(近似語)략어(略語)등 세가지로 분류하엿고 부록(附錄)으로 「한결로 처리한 말떼」와「한자의전음(漢字轉音)」두가지를 첨부하엿는데 그가운데서 표준어로 채택한 어휘수(語彙數)는 이천륙십말 략어(略語)는 일백삼십다섯말 근사어(近似語)는 삼천오백네말이며 표준어에들지못하고 도태된말은 이천팔백륙십여덟말로 어휘총수는 팔천오백륙십일곱말이나된다 이사정한 낫말(單語)의범위는 상용어(常用語)가운데서 뜻이가튼말과 뜻이비슷한 말만으로하고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써·으뜸을삼되 가장널리쓰이고 어법에맛는 시골말도 적당히 참작하여 취하엿다

가튼말은 여럿가운데서 표준말 하나를 가려잡고 비슷한말은 제각기의 독특한 뜻을발켜서 각각 독립한 표준말로 인정하엿다

그리고 모든 낫말은 먼저가튼 말끼리와 비슷한 말끼리로써 말떼를 만들고 다음에 다시 그말떼만의 각낫말 사이의 소리를 살피어 그차이점의 제일성(齊一性)을 따라 모든 말떼를 류대로 모앗스며 부록으로 한문글자의 본음이 반드시 한자어(漢字語)의 표준이되는것이 아님을 표시하엿다 이 「표준어모음」대로 문자로나 말로나 일제히 사용하게되면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가서나 동쪽에서 서쪽에 가서나 다가튼조선사람사이에는 통하여 아지못할리 만무할것이다 (사진은 발

"文筆方面에서 먼저活用하기를"

大任을完成한後에 李克魯氏談

조선어학회간부중 특별히 리극로(李克魯)씨와 몇분은 밤을 새우고 점심은물론 저녁까지도 만히 굶어가면서 조선문화운동에그[illegible]가될 조선말연구와표준어 사정을위하야 십년동안을 여일히 전심전력하야 오늘에 비로소귀중한 결과를짓게되엿는데 그들의헌신적 노력의리면을 아는사람들은 누구나 눈물겨우며감사하기 마지안는다「표준어모음」을 발표한 이십팔일밤에 조선어학회 간부 리극로씨는 귀자에게 가장겸손한 태도로 다음가티 감상담을 간단히 이야기하엿다

우리가 노력한결과 비로소사정한 표준말을 발표하게되엿는데 [illegible] 각지방사람이 만히 [illegible] 조선어로는 [illegible]

이발표에 대하야 그마음이는 긔대를 가지고어서슴을 알게되엿습니다 아프로 이표준어대로 일반대중이 사용하여주엇스면 조선어문(語文)통일에 만흔 효과가 잇슬것은 틀림이 업지마는 먼저 문필(文筆)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이표준어를 꼭 준용하여 주어야만일반대중에게 빨리 보급되리라고 밋습니다 그러타면 우리가 오래동안애쓴 보람은 빗나게 될것으로 압니다

(조선 출생의 승장)

戰鬪機墜落

江山大尉는無事

【[illegible]】비행제사련대소속 전투긔(戰鬪機)○긔는 평양을 긔점으로하야 야외항공연습을하는중인데 이십팔일 정오경모방면에향하야 이긔편대(二機編隊)로써 비행중 돌연○긔중 강산대위(江山大尉)조종긔는 [illegible] 정주(定州)서외에서 출면 발동긔에 고장이 생겨 공중회제불입으켯다 강산대위는 침착하게도 파라슈-트로서 [illegible] 긔체를 [illegible]하야 무사히 정주남쪽인 [illegible] 십오리지점에 착륙하얏는데 긔체는 파산불통에 추락하엿다

大金携帶한米穀商 留置取調中急死

【二十六日上三峰駐在所內의怪事件】

檢事出張·眞相調查

【會寧支局發電】상삼봉(上三峰)경관주재소에서는 이십오일에 청진(淸津)으로부터 간도(間島)로 도라가는 간도 룡정촌 십자가(龍井村十字街)에서 미곡상을경영하는 박봉욱(朴鳳郁)(?)이라는 사람이 돈 일천여원을 가지고 잇는것을 수상스럽게 생각하고 데려다가 검속하고 취조를 하엿는데 이십륙일 오전세시쯤에 갑작히 죽어 버렷다 이십륙일에 회령(會寧)삼성의원장(三省醫院長)이 그 시체를 해부하려가다가 사퇴하고 도라오고 이십칠일에 다시 회령도립의원장(道立醫院長)이 출장하야 시체를 해부하엿다 그해부한 결과를 원장으로부터 들으면 머리와 배와 가슴에는 변적(?)이 업스나 간장(肝臟)에 회저이잇고 두다리에 흠시미른 흔적이 잇섯스나 그것이죽은 원인이라고는아직 말할수업다하엿다

이급보를 바든회령검사분국에서는 이십륙일에때원(目原)검사는 서기한명과 회령삼성의원장 김(金)의사와 조수를 대리고현장에 출장하야 검시한결과 휴부와 두다리에 마즌흔적이 현저하다한다 죽은사람의 유족이 해부를 거절하므로 김의사는 당일로 회령으로 도라오고 이십칠일에 검사는 아모리해도 해부를 해보아야하겟스므로 회령도립의원장을 불러다가 시체를 해부하게된것이다

때원검사는 방금 가해자에게 진상을 조사중이다죽은사람의 체는그유족이 이십팔일 정오에 청진(淸津)으로 운반해갓다 죽은 박씨는 지난이십사일에 청진포항동(浦項洞)에서 역시미곡상을 경영하는 장남 박명상(朴明祥)(三一)의 집에가서 미곡대금 일천사십원을 바뎌가지고 이십오일에 게전을 마나 그날 오후다섯시에 [illegible] 상삼봉에 도착하엿는데 [illegible]주재소원은 [illegible]를 가지고엿는것을보고 밀수입한것으로 의심하고 붓잡아다가 취조하엿는데도파이 이십칠일오전세시에 죽어버리게된것이라한다

「人의道」敎潰滅

【大阪特電】지난 이십팔일 대판부(大阪府)특고과의 대적거 출동 결과 대판부중하내군포시정(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인의도교(人의道敎)본부 초대교조 삼목덕일(三木德一)의 유력한 간부들을 과소수용하기 때문에 [illegible] 백산지부(支部)에 설교를 [illegible] 장소는 자발적으로 해산하는것이 계속해 생기는중이며 특고과의 조사는바대로 보면 시월십 [illegible] 삼십만의 신도는 대 [illegible] 오월까지 륙십만의 신도는 한편 유력한신자들이 작구탈퇴하여서교단내부는 랑패하고잇는 중이데 [illegible] 그교단에 대하여서 해산와 [illegible]가 나릴모양이다

스피-드禍!

實習生"빼스"顚覆 八名이重輕傷

昨日鷺梁津大路上의慘變

限外速力으로疾走中

【永登浦】제한외의 스피-드를 내이고 질주하든 실습생태운자동차가 도중에 한울을 잘못돌려서 자동차가 전복하야 팔명의 중경상자를 내인 교통참화한건—

이십팔일 오후일시사십분 시내 약초정(若草町)에잇는 동아자동차강습소(東亞自動車講習所) 실습용대형자동차 경제일백팔십삼호에 련습생이십이인을 태워가지고 운전수 관철정(貫鐵町)이백오번지 박효귀(朴孝貴)(三七)가 조종하야 영등포방학정(永登浦放鶴亭)경성방으로 향하야달리다가 로량진정(鷺梁津町)일백사십사번지압 경인일등도로(京仁一等道路)를 통과할지음에 너무도 스피-드를내인관계로 핸들경한들이 듯지안케되여 드듸여 일대음향을내면서 그만여프로쓸어저서 승차중의 조충원(趙忠元)리태완(李泰完)한[illegible]옥(韓[illegible]玉)임금순(任金順)등 남녀실습생은 각각얼골기타에 전치삼일 내지 이주일을 요하는 중상을 닙고 그밧게 네명은 경상을닙엇슴으로 목하 철도의원 적십자병원과 로량진금강의원등에난우위치료중이라는데 일반자동차종업자들은 크게주의할 일이라고한다 (사진은 전복된자동차)

◎穩城勞農同盟事件 最高七年役判決

女子被告五名은執行猶豫

清津地方法院에서

【淸津】함북온성군(穩城郡)온성심으로 농민대중(農民大衆)을획득하야 비밀결사(秘密結社)로농동맹(勞農同盟)을 조직하엿다는 세칭 온성로농동맹사건(穩城勞農同盟事件)은 검거이래 만일년이경과한 지난이십칠일 오전열시 청진지방법원(清津地方法院) 제일호법정에서 호전재판장(戶田裁判長)으로부터 최고징역칠년의 중형의판결언도(判決言渡)가잇섯다

피고는전장원(全長元)외 열네명으로 그중에는 묘령의녀성이 다섯명이나 끼여잇서 공판정에 이채를 띄우고잇섯다 각피고의 판결은 다음과 가튼데 일부분은 구형(求刑)보다 더중한 판결언도를 밧게되엿다

	判決	求刑
全長元	懲役七年	(七年)
全曾孫	同 六年	(六年)
金成男	同 四年	(三年六月)
金相禹	同 四年	(三年六月)
吳在奎	同 三年	(三年六月)
金元鳳	同 三年	(三年六月)
以上六名에未決通算三百日		
金相孫	同 二年	(二年)
金相洛	同 二年	(三年六月)
崔敦順	同 一年	(二年)
右三名에各執行猶豫五年間		
金二女	同 一年	(三年)
崔玉節	同 一年	(三年)
崔玉鉛	同 一年	(三年)
崔雙金女	同 一年	(三年)
蔡丙月	同 一年	(三年)
右五名에各執行猶豫四年間		
崔根杜	同二年六月	(三年)

風水害에破壞된 漁船의復舊計畫

最近에이르러鐵材價騰貴로

造船、配給에時日遲延

지난여름 풍수해로 남조선의경남, 경북, 강원, 전남 각도에서 어선의 파괴를당한것 사천여척중그일부 천수백척은 그간에다른곳으로라도 어선을 구하여어떠케해서던지 근근 생애를 이어가고잇는 모양이나 그밧게근삼천여척에 대하여는 아직도어선은 작만할길이 업서 가을의 고기잡이 시긔를두고 그대로할일업시 다른어장으로 다니며겨우품파리나 하는외는 모다생활의근거를 못잡고잇서 암담한상태에 잇는모양인데 이에대하야 총독부에서는 각도의 조사에의하야 어선 복구계획을 세우고 최근에 그실행안을작성중으로대개배한척에대하야 도와 총독부의보조가약칠할가량까지는하게될모양이다 그리하여 하로바삐어선을 새로작만하여 분급도록하려하나 일시에 그만흔 배에대한 재료를구할수도업고 또최근에는 철재(鐵材)가극히비등하야 여의하게 조선작업을진행시키기가극히 곤난한터이라한다 그러고 조선은 극한중의 십이월하순부터 [illegible]까지는 전혀 중단 되게됨으로 조선 작업이 빨리진섯된다하여도 어름까지에 완성될런지 념려되는터이어서 당국에서는 어촌구제에대하야 상당히 심려하는모양이데 그중에도 문제되는것은 철재갑시비등하야조선에사용할못(釘)을 구하기힘든것이어서 예상이상으로 어선의 제작과 배급이 느저지지안흘까하는것이다

災地에沒義地主

【安義】경북의성군서부일대에서는 지난여름에 보기드믄 대풍수재로 일반농형이 심혹한공작을 면치못하엿다한은 루보한바이어니와 당국으로서는 자주간담회를소집하여 자주 작인간의 쟁의를 미연에방지코저 소작감면에대한 독려주의가 잇섯슴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잇는 대지주 김명준(金明俊) 소판(小坂)등은 평년보다 더욱소작료를 가혹하게 강요중이데 전수확보다 소작료가 도로혀 만흔곳도 허다할뿐더러 한게 단블공지의 작인들은 흉작을 실농하기위하야 구장의협화하에 탈취하라는바 확포한지주에게대하야 더욱비난성이놉다고한다

父母의애태우는 昌鉉이三男妹

아침집에서나간채 소식묘연

西署에搜查願提出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십이번지의류호에사는 박재풍(朴載豐)씨의 장남 창현(昌鉉)([illegible])장녀 복현(福鉉)([illegible])차남 성현(成鉉)(三)등삼남매는 이십팔일오전 아홉시에집바로나간뒤로 이날저녁까지에도집에도라오지안케므로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원을 제출하고 사방으로 찾는중이라한다

强盜放火犯行 面目차리려다

【咸興】돈버리나갓다 집으로돌아오든길에 벌자든돈한푼도 가지지못하고 가족을볼면목이 업다고하야 돈을어드려고 방화(放火) 절도 강도상인의 네가지죄를 단번에범한사람!

강원도삼척군 원덕면리천리(江原道三陟郡遠德面理川里)정경문(鄭景文)(二七)은 이십칠일밤화강도등 네가지죄명을 걸머지고함흥법원검사국에 넘겨왓는데 범죄내용인즉 그는수년전 경북봉화(慶北奉化)방면에 돈버리를떠나갓다가 지난여름강원도수해(水害)의 참보를듯고서 고향에잇는그형의소식을알려고 집으로 돌아오든길에 주머니에는 한푼돈업서 그형님뵈올면목이 업다고생각한끄테 도적질이라도하야 돈올쥐고서가려고 구월팔일오후여덟시쯤 리천리(理川里)홍순범(洪淳範)의집 허청에 불을질러노코 동리사람들이 모혀든 틈을타서 그동리 잡화상(雜貨商)김병욱(金秉旭)의 집에들어가서 철궤를들처 십오원을 도적하야 다라나려든지음 주인을맛나서 서로겨루틀하게되야 쇠마치로 김병욱(金秉旭)의 머리를갈겨 중상을 입히엿다고한다

그릇된母性愛로 親子殺害한人妻

懲役二個年、三個年間執猶

【釜山】남편에게 의심받고 죽엄으로서 자신의결백을 증명하겟다는비장한 결심을하는동시자긔 죽은후에뒤에남어잇는 자식들이 가진고생을할터이니 자긔와가티 죽도록함이 조켓다는그릇된모성에로 말미아마 삼녀와 차남을죽이고 장녀와 자긔는미수로도라간 부산부복전정(福田町)대부무자(大部茂子)(三七)에 관한 살인급동미수사건의 판결은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칠일오전십시부터 부산지방법원 제이공판정에서 황권재판장으로부터 징역이개년에 삼개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이잇섯다 그리고 동일오후두시경에 출감하야 남편의집으로 도라갓다한다

男女老少

●補藥은 洋藥보다 漢藥이 第一!
漢藥中에는 百補丸이 斷然 第一
그럼으로 百補丸은 各界 貴族、兩班、朝野名士 諸氏의 賞贊 推奬 愛用을 밧는바입니다

一、老年이쓰면 更少年 이되고
二、壯年이쓰면 陽氣가大發하고
三、婦人이쓰면 煖宮·胞胎하고
四、靑少年이쓰면 精神이 聰明한 秀才가 됩니다

이런분은쓰시요
▲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蒼白한사람
▲性慾이줄고 活氣가업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無力한사람
▲肺가不足하고 허리가압흐고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 衰弱한데 特效함
▲消化不良、체증、속병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illegible]지도 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 든든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illegible]가고 [illegible]力이됩니다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은 特效합니다
▲눈이밝가지고 皮부가 조와지고 血色이조와집니다
▲全身 五臟六腑를 다잘補하오니 참말 完全한 陰陽雙補되는 快感은 百補丸服用人이라야만 알것입니다
▲過飲過色人에게는 特別速効합니다
▲男女老少 다 좃合니다

世界第一記念
▲先着一萬人限無料進呈
躍進日本쓰포-쓰는世界第一
今回獨逸伯林에서 所開된 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 榮光의 一等! 一等! 政府는 國民保健을爲하야 一千萬圓의 保健豫算을하는時 健康國策으로 天地가振動하는이때 最高의健康藥 百補丸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健康을爲하야 또는 世界的쓰포-쓰를 紀念賀하기爲하야 損益不拘하고 大大奉仕的으로 先着一萬人限하야 百補丸(十圓也半劑入)一箱式을 無料進呈하기로하엿사오나 勿失好機하시고 남보다먼저 一日速히 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中止합니다
▲注文書에는必히「無料進呈注文書」라고明記하시요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 六三二一番·振替京城五番

不老長壽·更少年藥

高貴漢方
補血強精

勿失好機

百補丸一箱式無料進呈期限도
滿期 迫到 不遠 締切되오니
機會를일치 말고 一日速히注文하시오

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 一劑無料進呈
藥價格 一劑 拾圓·重用 二十圓

ふる血 新療法とは
血行の不順は 万病の因!

變化에서高血壓이되여 ……狹心症 腦溢血……

움직하든가 半身不隨가되든가 코가헐헐하야 骨結核이되든가 精神病을惹起하는腦梅毒가튼 實로 悲慘한結果를 招來하는境遇가非常히만흔것이다。

그리면은 엇지하야血行의不順이되는가? 그것은

…「瘀血」의…

行爲로서 이것은 지나친行動에서感染되든가 妻가男便에게不知不識中에感染하엿든가、或은父母에게서遺傳이나、不完治나 어느것이나肉體의속깁흔곳에 潛入한病毒이날마다마시는술、烟草의毒 肉食毒、거긔에婦人은 月經과産後의瘀血等이 相互連絡하야 變質된潛在性綜合毒素、所謂古方醫學이말하는『瘀血』이되여、우리의重要한血液을不潔케하고 또 血行을妨害하는結果 新陳代謝의作用이不活潑하게되여 肉體의抵抗力이몹시衰弱하야 그鬱血個所에前迷한과가티 病毒性의慢性自覺症狀이되여지고마는것이다

이두려운瘀血을如何히 하면 淸淨케할수잇슬가? 예전부터 거머리나 부앙에依한 瀉血法破血劑療法等은 不便과 副作用을 同伴하고 病弱者에게는 危險하야 應用할수업는 缺陷이 잇는고로、當研究所는多年吉原病院에서 多數한 有毒患者의 治病에 當한 小屋先生과 가리協力하야

…現代醫學을…

基礎로 古方醫學의 眞髓를 再檢討하야 苦心研究한 結果、여기에內服劑로서、副作用이 업고 『瘀血』을 體外에 排出하야血行의不順을調停하는 新療法을 創見함에 成功하엿다 詳細는 當古醫學研究所로 葉書로 申込하면 無代送呈의『血液循環과 瘀血療法』書並 그療法으로 救함을바든문의 闘病實驗錄을 一讀하시라……。

フルチ創製者 前東京吉原病院 小屋良明先生

醫師가 病者를診察할때에는 于先第一로、반드시病者의 脈膊을 보는것은 누구나다 잘알고잇는 것으로 이것으로써 보드라도이脈膊、即心臟의動作、다시말하면血液의循環、即、血行을말하는

…피가도는것…

이우리肉體의 健康을 診斷함에如何한 重要한役割인가、우리의貴重한 生命과如何한 重大關係가잇는가를 알수잇는것이다

이重要한血行 우리가 살아가고、呼吸을하야、每日이러케活動을함에잇서서 一秒間이라도 아니 一瞬間이라도 멈칫떠러저 잇슬수 업는이血行이、萬一不順하게 되면 엇지될가? 예전부터 古諺에도、

…血行의不順은萬病의因…

이라고갈아처온바、各種으로病의 原因이되는것은 明白한事實이다 거기에着眼치안코 이것을瘀氣의 然故라고가벼히生覺하야、何等의 手當도아하고 放任하여두면病毒은漸漸뿌리깁게파드려가 動脈의

悸心亢進症으로 動悸숨이 갓분내가

岐阜縣 岡部房次郞

……何如間 녀름도지나 이제겨우安心하고잇솝니다아직도 動悸、呼吸이갑운것이 激烈하고 耳鳴眩氣가나고 顏色이낫버 根心한남어지 醫師의診察을바든바 狹心症이渚耗할 念慮가잇다하야 即時 近傍藥房에가서フルチ錠을사다가 服用하고잇스며 其後 나의體質에 適合한까닭인지 效果가漸漸낫타나 요즈음은 健康體가되여지는것갓고 근심에놀라는 한편 繼續服藥中입니다……

血壓은常態로나리고 麻痺와허구듬도快差

東京 中川惠美子

前略一個月前부터一層手足이痲痺되고 腰痛이잇서步行時에는漸漸더한것가튼 感이잇서、더옥困難、허구듬으로 말도독독하지못하엿습니다……나는 以前부터血壓이놉흐다 놉혼숨으로 身邊을爲해달아보죽 生藥보다 더합으로 即時フルチ錠을服用하엿드니 血壓이常態에 갓갑게나리여 허구듬도 만히 나아가는 것갓고 氣分도 爽快하여지는 것가타서 (後略)

警視廳前吉原病院 小屋良明先生創製

排毒と順血に フルチ錠

主効: 梅毒 胎毒 脊髓癆 高血壓 動脈硬化 腦溢血 中風 狹心症 心悸亢進 甲狀腺 貧血 喘息 リウマチ 神經痛 神經衰弱 ヒステリー 頭痛 常習便秘

定價: 十一日分 三圓 / 廿二日分 五圓 / 五十日分 十圓

無代進呈 (四六判五十頁)

葉書로申込하면即時送呈함

古醫學에서新發見

病毒排除 血液循環(ちのめぐり)と瘀血療法(ふるちれうほう)

必讀

▼頭痛、耳鳴、肩痛、手足이마르는분 ▼動悸、喘息、寢汗、盜汗으로煩悶하는분(中風、神經痛) ▼記憶力이薄弱하고부끄럼으로苦悶하는분(心臟衰弱人) (婦人、神經衰弱) 熟眠치못하는분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三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入浴前의 구린싱으로 判異할만큼 어여뻐진다

때를빼고 벗꺼름에 第一等

歐米에서最近流行의

新入浴美容法

入浴前에 얼골에 구린싱・크림을 若干발너두면얼 매안되여 마튼사람과가티어엽버지고 벗꺼롬도速히 업서짐으로 이美容法이 歐米婦人間에 大略히流行 되고잇다。

方法 明色구린싱・크림은 入浴美容法에쓰시면 매 우조습니다

入浴前에 明色구린싱크림을 얼골에서 목까지 가볍게문지르고 그대로入浴을하는것이다 湯속에 서 가만이잇스면 더운기운때문에 毛孔이퍼지고 獨特한美容成分이 皮膚의深部에吸收되여 美華한 美容作用을식히고 한편으로는 特有한强力的淸掃作 用으로 深部의 때나 더러운것이 점점表面에 吸 着되여짐으로 湯속에서나올때에 더운물에 짜내인 手巾으로 더러운것을닥거내든지 또는비누나洗粉으 로 가벼히씻서 때를씻서내는것이다。

이러한 簡便한것으로 暫間동안에 全혀다른사람 가티 어엽버지고 벗꺼롬잣흔것도 速히엽서짐으로 누구나 놀래인다。

洗顔과美容에華美한

二重作用

(1) 淸掃力은비누以上

잣구로집녀 씨처내는것으로 비누나 洗粉으로는 到底히 떠러지지안는 皮膚深部의때나 떼려운것까지 모다 깨끗하게 떠러진다

(2) 皮膚를深部에서美化식힌다!

獨特한 美容成分은 가장效果的으로 皮膚深部에주어 얼골의 深部에서부터 때를빼는것으로 언제든지 浴湯에서나온것처럼젊고어엽버진다。

▲定價 中罐 六十五錢 德用特大罐 一圓廿錢

歐米에서는 구린싱出現으로 從來의洗顔料는 밟서 時代에떠러저바리고 最近統計를보아도 구린싱의消費額은 모든化粧品中에 首位를獨占하고 歐米婦人들의 美化가 더하야젓다고까지한다

歐米婦人들의洗顔 은모도구린싱이다

明色クリンシングクリーム

구린싱크림

朝光 創刊一週年紀念倍大號

朝鮮日報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臨時定價四十錢

創刊一年辭……主幹

詩・歌 (堂堂四百五十頁)

우리발……金東鳴
다리우에서서……林學洙
밤의讃美……盧天命
칡넝쿨……趙靈出
十一月……文槿野
不安……李洽
窓……馬鳴

朝鮮地方自治制再檢討……咸尚勳

朝鮮의 地方自治制度는 果然朝鮮人에게 어떤利益을 가지게하엿나? 이制度는 朝鮮人生活과 어떤關係가잇는가 를研究한 이스로 批判한論文으로 누구나一讀하라

稅制改革案批判……朴用來

朝鮮新聞發達史……車相瓚

한글運動의社會的意義……李克魯

東京遊記……春園

東京은 가본이도만코멀지도아니한곳이지만春園이二十年만에보는東京은果然어떠한가? 그魅力잇는筆致로 쓰여진이글은洛陽의 紙價를 올릴 名文이다

古藝術·新藝術의交流

△朝鮮雅樂을咸和鎭氏게듣음
△古詩歌文學을李秉岐氏게물음
△古畫와古畫家를高羲東氏게듣음
△新文學發展策을李光洙氏게물음

古藝術과 新藝術에 對한各界權威에게 本社記者가 探訪한 貴重한글 이것은 朝鮮을알려는이는 누구나 읽어야 한다

創刊一週年紀念 各界名士의祝辭

曺晩植 高羲東 梁柱三 李勳求 李瑄根 李萬珪 朴月灘 李秉岐 柳瀅基 都逢涉 都相祿 孫晋泰 李淑鍾 李軒求 權相老 金尙銘 李孝石 金仁湜 金基錫 宋錫夏 李榮俊 金周經 金秉河 金鍰根 鄭芝鎔 金允經 李一 毛允淑 李軒求 梁柱東 卞榮晩 (到着順)

現代思想文藝의浪漫精神……玄仁圭

映畫讀本 ▲映畫監督論……申敬均 ▲映畫와演劇……朴基采

扉詩……李春園
表紙……安夕影

漫畫特輯
▲文壇달노리大會
▲人生下宿雙曲線
▲鐵拳主婦의日記
▲사랑은盲目

笑話

安心外十三篇滿載 特別色刷로編輯

心頭雜草 禽獸會議……金石松

景風秋晩의故鄕내

晩秋鄕思……梁柱東
嶺西의記憶……李孝石
深山의다래……毛允淑
아련한追憶……張德祚

落葉日記

아리사……李源朝
짧은밤……金裕貞
制服의處女……李應淑
生活表……全武吉
凋落의가을……安懷南

長篇小說 春夢……方仁根

古制度研究草 烽火……車相瓚

歸田園記……白鐵

中篇小說 未完成……朱耀燮
中篇小說 明日……蔡萬植
中篇小說 情熱記……嚴興燮
短篇小說 車夫……尹基鼎
映畫小說 愁雨……安碩柱
短篇小說 港口……姜鷺鄕

實話 銀貞의悲劇……葵生
(北滿에서强制結婚으로말미암아 된一女性의암울한 운 悲劇의哀話)

古代文化地의印象

歷史를 우리는 웨 알어야하나? 지나간 文化의자취를 우리는 웨 더듬어야하나?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明日을 建設하기 爲한 한개의 材料로서 알려는것이다 松都와 扶餘! 이곳은 朝鮮의 文化로서 歷史上 가장 잇지못할곳이다 우리는 두분 歷史地理家의 붓으로써 그러진 옛모습을 읽고 다시 한번 감상하라

松都篇……高裕燮
扶餘篇……姜在鎬

스포ー츠……金興濟

探偵小說 疑問의毒死事件……金煥泰

史話 俠客紐由……靑吾

情話 鴨綠江上三美人……一吾生
成功美談 盲寡婦의成家……壽春生
史話 王昭君……翠雲生
野談 活人樹……靑波
民俗 水火不通……白花郞
史話 까닭부른白魚……申鼎言

五大畫伯晚秋風景圖 高羲東 白潤文 具本雄 金景源 都相鳳

☆어린이世界★
童話 오동나무미테노인……崔秉和……
童謠 딸레 外一篇……金泰午……
衛生 늦가을어린이衛生……李聖鳳……

朝鮮日報社主催 全朝鮮學生美展畫報

動亂西班牙概觀……金賛龍

☆락엽☆

살이너무쩌도걱정 애나키도어렵다

병은병이나약도별로업스니 과식을마는것이제일

사람이 너무 야위어 가죽과 뼈가 맛붓다시피되며라도 그다지 조흔 것은 업지오만 그 반대로 사람이 동통 살만 쩌서 마치 고기뭉치처럼 되야서는 그보담 멧배 더 고약하고 숭업습니다。그러데 남자도 살이 너무 쩌서는 재미업지오만은 맵시와 태도를 생명으로아는 녀자로서 그러케 동동한것은 일평생의 한이 되지 안흘수업슬것입니다。살을좀 빼보려고약을 자신다 음식을 조리차한다 하는것도 한갓 무리만은 아닙니다。그러케라도 하셔서 살이 나려질수잇다면 그분에게 그보담 더 기쁨이 업습니다

살찐 분으로서 제일 곤난한것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입니다。조금만 몸직어리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어 견듸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더러 녀름에는 다리가 진무르지를 안습니까?땀도 남보담 유난스럽게 더 나지를 안습니까?그러니까숨이 차고 변비가 되여 몸을 움직이기가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또 긔관지(氣管支)라든지 간장(肝臟)이라든지 위장(胃腸)이라든지에 울혈(鬱血)이 되여 혈압(血壓)이 노파짐으로 뇌일혈(腦溢血)이 되기가 첩경입니다。그중에도 안악네들은 살이 넘어 쪄 노흐면 월경이 불순하고 단정(斷經)이 멈처서 애기나히에도 재미 업습니다。애기를 배드래도 난산되기가 쉬워서 분만(分娩)에도 곤난이 적지 안습니다。

×

그런데 살이 찌는 것도 정도나름입니다。어느 정도를 넘어서 일상생활에 곤난을 밧게까지 되는 때라야 비로소 병으로 볼수 잇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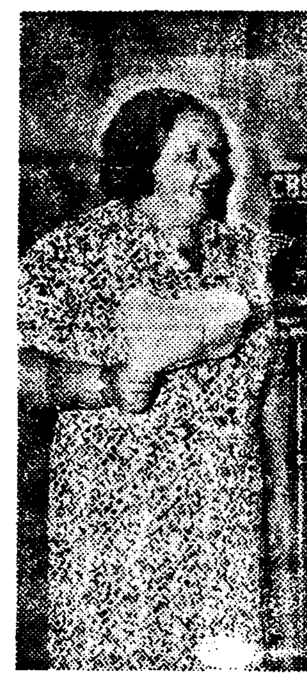
(一) 지방(脂肪)이 그다지 과하지 안허 오히려 외모가 풍부해 보이고 체격이 당당해 보이는 경우

(二) 조금 심하야 목이 짧고 배가 내밀어서 것는 이보담 굴르는 것이 빠르리라고 보이는 경우

(三) 지방이 아조 지나치게 만허서 긔거동작이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이러케 살찐 정도를 세층으로 논하 본다면 둘째번부터 세재번이 병입니다

첫재ㅅ번은 차라리 그러케 살이 찌지 안 하니보담보기가 조화서 병이라고 말할수가 업습니다。살이 찌는 원인은 선천적으로 소질이 잇는 분이외에 대개가 과식(過食)으로부터 옵니다。즉 영양분을 너무 만히 섭취(攝取)한 까닭으로 그 것을 다써버릴 길이 업서서 남처가 남어서 지방과다가 되는 것입니다。흔히 돈푼이나 잇서서 잘 먹는반대로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은잘 이 찝니다。부자에 살찐사람이 만코 그래서 살찐 사람을 부자상으로 보는것도 그까닭이랍니다。근년에 와서 내분필(內分泌)의 연구가 성행한 결과 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잇다는 것을 알게 되엿습니다。예컨대 갑상선(甲狀腺)을 비어 버린다든지 뇌수하체(腦垂下體)에 병이 생기거나 한 경우에는 살이 갑작이 찝니다。그러한 것은 예외로 하고 보통으로는 첫재 지방을 맨들어 내는 물질을 먹지 안는 것이요 둘재는 몸에 싸둔 지방을 얼든 써버리는것입니다。그럼으로 덩애질이나 지방가른것을 어느정도까지 먹기를 제한하고적의한 운동을 하는수밧게업습니다。



海外토픽 최신식안경에 연애소설 이것이미국녀학생

미국여학생으로 운동생이라고하면 여지까지

첫재、운동레안경을 코에걸치고

둘재、아침、낫、밤으로 꽉꽉공부하고

셋재、『쉑스피어』의 책을옆구리로세 끼며는 밤보다 떡달게읽고

넷재、남자를 독사뱀보다 더무서워하고

……이러케 단애밧듯이 헤왓는데 엇그제 미국시룰대학의우등녀학생으로조직된 『알파·이시·델타누카』부인회에대해서 국비밀로조사한바에의하면 다음과가튼 흥미잇는 결과가드러낫다합니다지요

현대의우등녀학생은! 하고

첫재 최신류행의 안경을버리고

둘째 공부는하로에 두서너시간

셋재 『쉑스피어』—는따위보다 전위연애소설을 탐독하고

넷재 사내녀석을제일흥미잇는 사람이며케생각하고

……이렇습니다 그림해 현대아메리카녀학생의 맹목스럽지에는 임이떠버리지지안습니까

까닭모를불면쯩 함부로 못쓸 잠오는약

(上) 돈눈으로밤을발키는분은 먼저이점을주의하시요

병중에 잠못자는 병처럼딱한병은 업슬것입니다 긴긴겨울밤에 이리뒤척 저리뒤척 도련눈기만하고 아모리잠을 드리랴야 잠이 오지안흐며 초조하게 닭울홰리고 고생하는 것은 생각만하야도 몸서리가 끼칠일입니다 이것을 곳처보겟다고 별별약을 쓰는데 아모주저도업시 그냥 남이조타는 약이면 무엇이던지 먹어치는 수가잇습니다 대체 과학만능을 맹신하는 현대인은 신체의 모든 부조리를 단번에 약으로 곳치라고 듬니다。약가운데도 극약(劇藥)인 『카르모친』이나 『베로나ㅣ르』가튼것을 경솔히 쓰고잇습니다 그러나 잠못자는것은 그원인이 변비(便秘)로서 이러나는수도 잇는것이니 그원인을 아라서 고칠방책을 하지안코 약만쓰는것은 무모한노릇입니다

우리가 잘잘오는 약을 쓰라면 대개다음과 가튼때써야 합니다 외게에 자극으로 말미아마 이러나는 뇌(腦)의충분이 노파저서 잠이잘오지안홀때에 수면제의 약을 쓸것입니다

그다음 남과말다툼을 하여서 감정이 노파지고 정신이 흥분되여서 잠이오지안홀때는 위선 정신을 까러안칠약을먹어야 할것입니다

세재로는 기침과 호흡곤난으로 말미아마 잠을 잘수업슬때는 이원인이되는 기침을곳침모르히네제들을 써서 원인을 제거시킨다음에 자연히잠이오도록 하여야 됩니다

느진가을의결발 컬

吳淑模

『웨이브』의긔능(機能)을 극도로 발휘한것이 『컬』입니다 『고데』로머리끗을말아서 각처곳、동글동글하게 뭉치어 올리는것인데、일층더어울립니다。머리전체를 점잔케하든지、얼굴과 복장에따라 둥글게、굵게、혹은가늘게、혹은간단하게、복잡하게、혹은얌전하게、수선하게、형형색색으로 이『컬』처럼 머리에미(美)의 변화를 이르키는것은업습니다

모델 리숙자
미용사 방옥순

“그림자”

별이 둘이서
땅을 나려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애—저것봐—
제그림자를 보고
제가 뛰는겻 젼」
「에그—참
저애는바보로구나」

(궁정사립 엄달호)

그난리통에서도 파씨스트 사랑의 노래

—정열의나라서반아의병사들—

가튼 동족간에 류혈의 참극을 연출하고잇는 서반아란나라 그 난리통에서도 반정부군(反政府軍)들사이에는『파씨스트사랑의노래』라는것이 유행하고잇답니다。

이것은 마치 불란서 대혁명당시에 『라·말세이유』란노래(지금은 불란서국가로되어잇습니다)가 혁명군들의 입에 한창 불리워진것과 갓습니다。

반정부군의 병사들은 의사랑의노래는 교련바들때나 전장에나가 종에 기거할때나 병사안포의 탄환이 비쏘다지듯하는 그판에서도 늘 노래불러 쓸쓸하고 황막한 귀분을 스스로 위로하고잇습니다。가튼 류행가라할지라도 태평세월을 보내는 나라의 백성들의 퇴폐적인 노래와는 사뭇 뜻이 달릅니다。

그럿치만 이제 죽을지 일분후에 죽을지모르는 목숨을 걸머지고 전선에서 활약하면서사랑놀 찬미한다는것은 어쩐지정열의나라 서반아의정열다운 기상이보이지안습니까?

노래의뜻은 아래와갓습니다。

만일 죽엄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다시 그대를 만날수업다。
저녀른 하늘에 얼굴을 돌려라
먼 저편에 나는 가로눕는다

내가입고 잇는 애국(愛國)의 샤쓰에
그대가 노흔 붉은자수 더욱 붉게물들려지

내가만일 임무를 위해서쓰러젓다는소식을 듯드래도
슬퍼하고 탄식말게
우리들의기때、광영스런기때는
선전(善戰)이 꼿나고 개선(凱旋)한다

이윽고 봄이오슴짓고 서반아의하늘에
여명(黎明)을 고하게되다
단결을한위대한
그리고 자유스런
우리 서반아우에。

사진설명——우의것은 서울마드리드의 파시스트본부문간에크게써부친글빨은 『이건물은 인민의 수중으로도라와 목하 그보호아래에 잇다』란뜻 그건물의 경비에 당한것꿋한병정들 틈에끼며 꼿가튼고은녀성이 세사람이지겁대고 어린애까지 차저온것을보면 전쟁기분이란 꿈에도업섯습니다 아래——『신혼여행은 전선으로』이란기발한 『술로간』이 이제와서는 아주 평범한표어가되고 마렷습니다。다가티 전쟁에나가싸우는 남녀동지의결혼 전쟁에 나가는 전날에결혼하고 신혼려행은 전쟁판으로나가는것이 그리이상할것도업시 예사로여이게되엿슴이 나라사람들이 내란에 철저한까닭이아닐까요 이사진은 정부군(政府軍)이 전장으로 향하는행진입니다

왕자와거지 ②

마—크·토웬 作
崔秉和 譯

그런데 톰이나왕자나 두리다 열두서너살될때까지 아모이야기도 업섯습니다。그때 런돈은 인구는겨우 십만이나 이십만에지나지못하고 길목도좁고 또 꾸불꾸불 꾸부러진데가 퍽—더러웟습니다。그중에서도 톰이 살고잇는 『잡스런뒷길』이란곳은 더한층 지저분하고더러운 구차한동리엿습니다。그의집은 잡스런뒷길『쓰레기버리는곳』한복판에서잇섯습니다。조고마하고 다쓰러저가는 이제금방 쓰러질듯한 집이엿습니다。

여러분중에 아시는분도게시겟지만 서양에서는 집한채에한가구가 사는것은 돈만흔부자이고 보통은 집한채에 몃가구가 함께 살고잇는것입니다。더욱이 이근처 어려운 사람들은 그야말로 조고마한집에 열가구 스므가구가 복닥거리며 살고잇섯습니다。

톰의 아버지는 상층에잇는 좁은방 하나를 비러가지고 집안식구 여섯사람이 살고 잇섯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머니와 『베트』와『멘』이라고 불르는 누님두분、그리고 톰。

아버지와 할머니는 방구석에 다님은 침대를 가지고잇지만 그외의 네식구는 아모것도 가진것이 업섯습니다。자 그러면 어떠케자는고하니 침대미테 담요가 두개 집단이 조금 미테로 부터다가 짚을 두고 퍼노코 그위에서 잠을 잣습니다。

베트와 멘이는 쌍동이로 나히는 금년 열다섯살입니다。두리다 얌전한 처녀인데 학교에를 단여본일이업스므로 아모것도 몰낫습니다。어머니께서도 이두딸과 가티 마음이 착한분이엿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뿐사람으로 조금만 돈이잇스면 즉시 술을사다가 먹고나서는 모자(母子)가 싸움을 시작하엿습니다。

이것은 너무큰소리로 말할것이 못되지만 아버지 쫀·칸티는 도적놈이고 할머니는 거지엿습니다。그래서두 사람은 우선 세아이를 거지로 만드럿습니다。그다음에 도적놈이 되게하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먹은대로 잘되지안엇습니다。

저녁때 비럭질을나간 톰이 제수가업서서 아모것도 어더가지고 오지안흐면 그 아밤로 큰야단이납니다

게란속에게란

애푸리카남아련(南阿聯邦)의 『벨마—크리케ㅣ트』촌의 한농부가기르고 잇는암닭이 어떤날주워놓은알이 엄청나게큰 알을나핫답니다 알을깨트려보니 그속에는또다른 한개의 알이드러잇섯는데 이알은단단하고 완전하얏답니다 속에드러잇던알 무게는 겨우 두『온스』밧게안되엿스며 그것을깨드려본결과 아조노른자위 흰자위가 양전케 드러잇섯드랍니다

天下一品

龜甲萬

キッコーマン醬油

킷 코 만

キッコーリウ醬油
チガミリ·ウ醬油

各印共 十六立樽一樽 마다 味の素(小罎) 一個
八立罐一罐 마다 味の素(特小罎) 一個
各印共 二立壜一本 마다 高級モダンシャンプー 二個
빠짐업시進呈

御家庭むき景品附特賣

特賣區域 朝鮮全道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訓民正音頒布記念을압두고
正音反對派의上疏
● 方鍾鉉

노아 여 上疏를 다 보지고 좋 聖上에게 말슴하시기를 너이들이 이르비 用音合字를 反於古라고하야 諺文은 그저 音을 따서 이라 古字에 스니 만일 그러다고하면 薛聰이 지은 吏讀도 또한 異音이 아니라고하겟느냐. 吏讀도 그 制作된 本意가 백성을 便安케하려는데 잇지안으나 만일 人民을 便安케하고저하려는데 그 根本되는 意味가 잇는것이라고하면 지금 내가 지은 이 諺文도 또한

人民을 便安케하려는데 잇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럼에도 不拘하고 너이들이 薛聰만은 올라고 하고 그리고 너의 君上의 하일은 글라고 하는것은 이 어인일이냐 또 네가 韻書를 정말 아느냐 그러면 四聲七音字母가 모도 얼마나 잇느냐 이제 予가 만일 이 韻書를 校正하지안흐면 누가 將次 이것을 바루잡고저하는것이냐 또 너이들의 上疏가운데에 말하기를 『新奇一藝』라고하얏

스니 어떠한 말이나 予가 老來에 消日거리를 가지기 어려움으로 書籍으로써 벗을 삼어오는바 어찌 너이들이 말한바와가티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조하하므로써 그래서 이 諺文을 지은것이겟느냐 또 이것은 田獵放鷹의그것과는 산양하고 매를 노희 새를잡는그런것의일과는 全然히 다르니 그런 事情의일이 아니를 모지 알어라 너이들이 말이 자못 너무 지나침이 엇지 아니냐 또 予가 年老함에 國家의庶務는 世子가 이것을 專掌하야 비록 細小한일일지라도 진실로 이것을 參決하야할것이어늘 하물며 이 諺文에 잇서서겟느냐 만일 世子로하야곰 늘 東宮에만 잇게하면 宦官이 任事할터이나 너이들의 侍從의 臣으로서 빤히 予의 意思를 알

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것은 그것이 올타고할것이냐

鄭昌孫이 아에 對答하야갈오대

薛聰이 지은 吏讀는 비록 異音이라고하나 그러나 音에 依하야 釋에依하야 語助와 文字가 根本부터 서로 그러케 다른것이 아니지마는 지금 이 諺文은 모든字를 合하야 幷書하고 그 音을 變하니 이것은 字形이라고는 할수업고 또 新奇一藝라고한것은 特히 文勢를 因하야 이말을 하엿슴은 아니미라 東宮이 公事에 잇서서는 비록 細小한일일지라도 參決하지안을수업지만은 그러나 急하지안흔일에 잇서서야 어찌 해가맛도록 그러케 致慮할것이 잇스리요

上이 갈아사대

前에 金汶의 啓에는 말하기를 制作함은 不可한 것은 아니라고 하엿더니 이제 어르러서는 도리어 不可하다고하엿고 또 鄭昌孫이 말하기를 三綱行實을 頒布한後에 아직 忠臣 孝子 烈女가 輩出되는것을 보지 못하엿다고 사람이行하며 行치 안흠은 다만 그 사람의 資質의 如何에 잇는것이니 어찌 반드시 諺文으로써 이것을 번역하야 내인後에라야 사람이 다 이것을 본밧는것이 되리요 하엿스니 이른따위의 말이 어찌儒者가 事理를 알고 하는말이라고할수잇느냐 甚히 無用한 俗儒들이로다

上이 이前에 鄭昌孫에게 敎하야 갈아사대

予가 만일 諺文으로써 三綱行實을 번역하야 이것을 民間에 頒布하면 愚夫 愚婦라도 다 엇게 깨닷아 忠臣孝子烈女가 반드시 輩出할것이라고하엿스므로 鄭昌孫이 이에 이것으로써 啓達한故로 이제 다시 이런敎가 잇게되엇다。

上이 또 敎하야 갈아사대

予가 너희들을 부른것은 처음부터 罪를주려고함이 아니라 다만 上疏가운데서 한두말을 무러보고저하미러라 너희들이 事理를 돌아보지안코 말을 할부루 變하야 對答하니 너희들의 罪는 버서나기 어렵도다。

드듸여 副提學崔萬理 直提學辛碩祖 直殿金汶 應敎鄭昌孫 副校理河緯地 副修撰宋處儉 著作郎趙瑾을 義禁府에 내리엇다가 翌日에 釋放하도록 下命이 잇섯다 오직 鄭昌孫이만의 職을 罷하고 金汶의 前後變辭啓達한事由를 鞫問하도록 義禁府에 傳旨가 잇섯다。

一魯迅追悼文一
(五) 李陸史

最近한 例로는 얼마전 某紙上에 中國文學界를 批評한 文章을 한篇보앗는데 中國文學界를 三派에 난워서 먼저 創造派를 들어 푸로派라하야 매우詳細하게 論及하고 다음 語絲社를 小뿌르派라고 조그만지 말한後

……新…… 月社를 뿌르文學派라 해서 겨우 붓을 대다가만 젊은批評家가 잇서다 이것은 젊은氣質의 相對者라고 생각는派에 對해서는 무어細이 考究할必要가 업다는뜻을 表明한것이다 勿論우리는 書籍을볼때 相對者의것을 보는것은 同派의것을 보는安心과 愉快와 有益한데 밋치지 못하는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萬若 一個戰鬪者라면 나는 생각컨대 現實과 相對者를 理解하는 便宜上 보담만은 當面의 相對者에 對한 解剖를 必要로 하지안으면안될것이다. 옛것을 分明히 알고 새로운것에 看到하고 過去를 了解하야 將來를 推斷하는데서만 우리들의 文學的 發展은 希望이잇다 생각건대 이것만은 現在와 가튼 環境에잇는 作家들은 不斷히 努力할것이고 그래야만 참된作品이 나오는것이다』라 고 이簡單한 몃마듸말이 文藝界의 創作에 對한모랄인것이다 이얼마나 우리의 때에 사무치고도 남을만한示唆인고! 이러해서

……現…… 代中國文壇의父이며 批評家의批評으로서 自他가 그地位를 함께肯定하든 그의作家로서의 生涯는 너무나 젊은것이엇스니 一九二六年三月 『彷徨』이란作品을 最後로한긴그는 敎授로서 作家로서의 華麗한 生涯는 終幕을告하지 안흘면안될때가와다 그는 지금부터 『손으로쓰기보다는 발로 다라나기가 더밧버다』

一九二六年 北洋軍閥을 背景으로한 安福派의首領 段祺瑞의 政府는 急進的인左傾의 敎授와 優秀한 知識分子五十餘名 逮捕令을 나렷다 우리魯迅은 이五十名中의 한사람이엿다 그것은 一九二四年 國民黨의 聯俄容共策이 決定되야그翌年가을『國民된農等이聯閥으로廣東에오곡全國民的共同戰線』이엿든 國民革命의第一階段인 廣東時期에는 푸로레타리아의 同盟者는 農民都市貧民 小뿌르知識階級 國民的뿌르조아지ー엿다』

그래서 急進敎授들은 敎育部總長 軍閥政府를 肉迫하엿스며 이러한

……新…… 與勢力에게 恐怖를 느낀軍閥政府는 이러한敎授들과 學生들에게 逮捕令을나리고 學生들의行列은 政府衛兵들의 發砲로因하야 男女數百餘名의 死傷者가낫다 그때魯迅은 北京東交民巷의 公使館區域의 外國人病院이나 工場안으로 도라단이며 찬물로飢餓를 참아가면서도 新聞과 雜誌에 寄稿를하야 軍閥政府를 猛烈히 攻擊하얏다 그中에도『民國以來 最暗黑日에記하엿다』는 名文은 段祺瑞로하여금 椅子에나려안게되엿다

──붓으로쓴헛소리는 피로쓴 事實을 隱蔽하지못한다──中略──붓으로쓴것이 무슨힘이 잇스랴 實彈을쏘는것은 오즉 靑年의피다(墳雜著)

은늘날까지 中國文壇의『막심 꼬리키ー』이든그는 지금부터는文化의戰士로서『아Q·정뎐스』보다 悲壯한生涯가 始作되는것이엿다 그의말과가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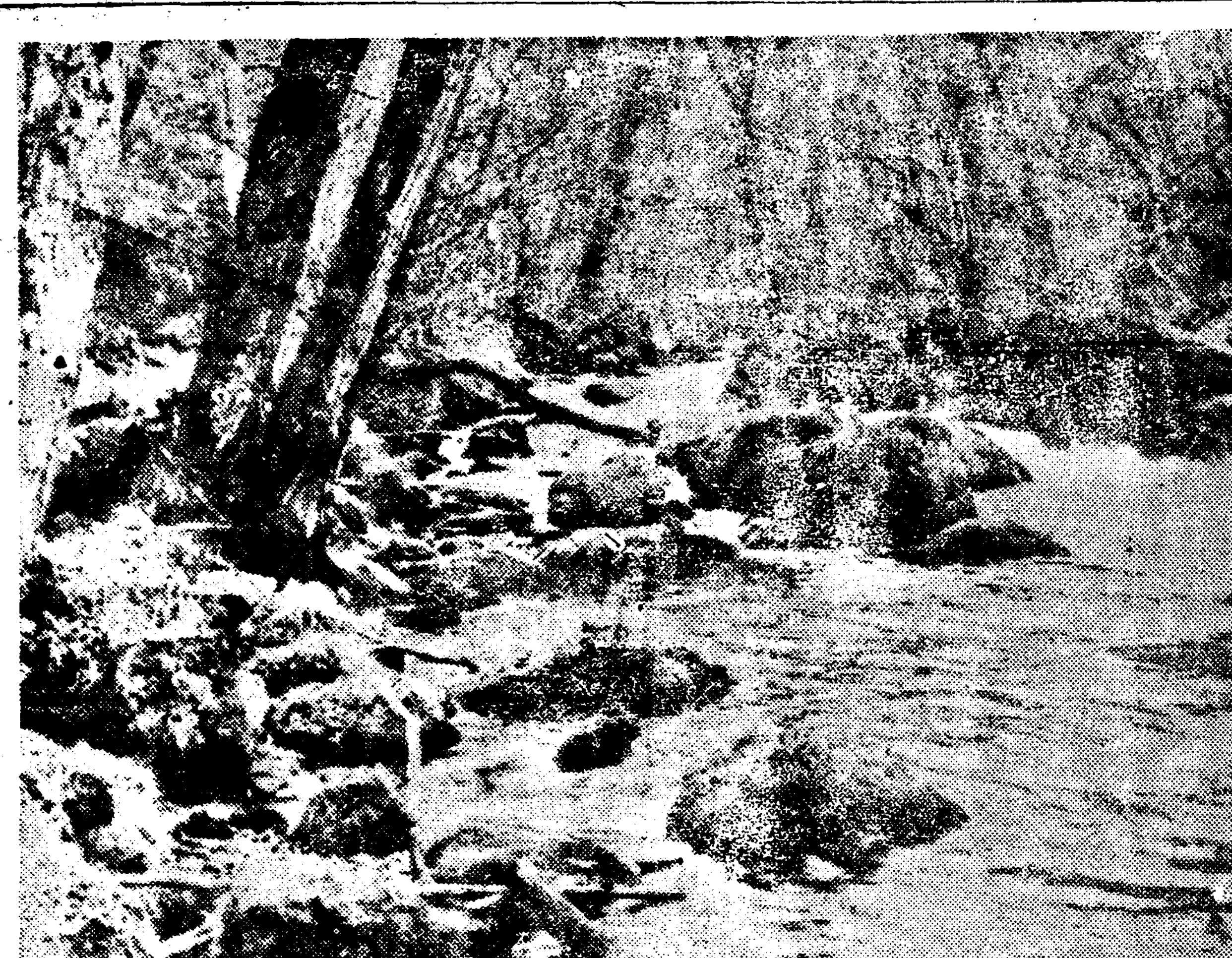
……最…… 晴熱한五十日이지나고 그는北京을脫出햇다 厦門大學에 招聘을바다갓으나 大學企業家의 陰凶手段인것을 안그는廣東中山大學으로갓다 그러나 一九二六年四月十五日 蔣介石의쿠ー데타ー는 廣東一省만 勞働者農民急進知識分子 三千餘名을 ─하엿 으며 한편 革命의戰士이라고 看板을지은魯迅도上海로 다라나야만 되엿다 여기서우리가 다시한번그에게興味보다는 最大의 敬意를갓게되는것은 다음의一文이다

──나의 一種妄想은 깨여젓다 나는지금까지 때때로樂觀을가젓섯다 靑年을 壓迫하고 들老物들이 다죽어지면 中國은보담더 生氣잇는것이되리라고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르치안흔것을 알엇다 靑年을 ──하는것은 大槪는 靑年인듯하다 또달이 再造할수업는 生命과 靑春에 對해서 한層더애낌이업시…(而已集)

이글은그가 沈默하고잇는것을 『恐怖』때문이라고 嘲笑한 사람에게答한 通信文의 一節로서 이때까지

……進…… 化論者이든그自身의思想的立場을 棄하고 새로운 成長의 一段로보히는것이라고 解釋해도 틀리지안흘것이다.

그가上海에 왓슬때는 國民黨의 쿠ー데타ー로 革命軍에서 좃겨온 젊은푸로文學者가 만엇다 『革命文學論』이 旺盛히 불티지고 實際政治行動의 前線을 떠난그들은 종잇대신에 펜을들엇다. 元氣旺盛하게 實際工作의經驗에서 매우 堅實한것도 잇섯스나 때로는 自負的인 英雄主義가 禍를끼치고──에失敗한 偏瞞과 極左的인 機會主義者들은 魯迅을 攻擊햇다 그러나 그는 푸로文學이란 어떤것인가 또는 어찌해야 될것인가를 알리기爲하야 아버지가틀 愛護주서서푸로文學論과 『쏘베트』의 文藝政策을 翻譯紹介하야 中國푸로文學을建設하고잇는동안에 『魯迅을打倒치안흐면 中國에푸로文學이생기지못한다』는 文學小兒病者들은 그自身들이 먼저 너머지고 이제그가마자가고말엇다 이偉大한中國文學家의 죽엄에 고요히머리숙이면서 나의 個人的으로 限 한 情形에 依하야 文藝魯迅의 輪廓을 뚜렷이 그리지 못함을 慚愧하얍며 붓을 못키로한다 ─了─


물소리도차다

二隨筆二
薔薇와祝祭
(二) 安龍灣

靑春의薔薇(下)

지금 봄을듯고 빨간노을이치저들어와 이야기의 譜表에 潤色을도두기를 기다리고잇다. 낡어진童話가티 한해묵은 누런葉紙에 노을이 빨가케 저저들것지. 이靜謐한期待의 人情! 이것은 永遠한 슬픔인"알리샤"의 이야기에서의 婦人불가튼 希望일것이다. 讚嘆하고도 남음이 야기ー"지이드"의『좁은門』이란 雜談한 書籍은 여메 노여저잇다. 이도 黃昏 소리업는 曲調에 얼키어 지난해의 孤獨하든 마음을"페이지"마다 香그럽게 꼿피운다. 그해에 丫가 國境을 넘어 北쪽으로 처음의 悲愴한 紡浪의길을 떠날때 나는홀로女子동무의 보드라운 伴侶라는慾望을 이冊에서 차저보기도 하엿다.

어떤날저녁 뭇장을 뒤집엇슬때 마지막句節ー『下女가 람포燈을 가지고 드러왓다……』에서 눈을들려 房안을보니 벌서저믈기쉬운 가을저녁이엿다. 어두어질도 모르고 尖感의 눈물속에 읽든이야기…….

夕陽의 光彩에, 한節한節이녹아들든 아름다운 喜悅! 그러고 離別의 象徵으로 그餘韻가튼"아메지스트"(紫金色)의十字架의 記憶은 오늘도 젊사랑하든 사람의 포슬처럼 光彩속에 살고잇다.

아 우리두젊은이의 淸雅하고도 眞實한生命이란것도 이때부터 싹튼 悲劇이엇다. 사랑하기에 떠려저야할 無情ー어것은 『알리사』의 日記에적은 좋은 『…으로의 滅亡이 아닌가』로 울림"의절 『人生의것이는 悲哀는 빠려저잇지안타』 건만 오늘 장미꼿을 가슴에 … 실로 자랑스러운 노래의 花環을 곱푸는 내靑春의 希望과 華麗의가 울날 헤어짐의 이야기가 글를즐은 나도 몰라지엇다. 『좁은!』點스럽게 되는것……李硏보담도。』──라고 "켜틀"에게 말할때 그가"알리시"야 네가 어디시는 나는 그리못되단다. 너어시는──늘하는 純情속가슴기피안고 떠려지는 試練에서 새로운 創造의봄을 가지려고하노니……靑제비 九月달의 떠나는曲調는 아모리애처러워도슬퍼보이지 안는다. 그는 연제나 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잇기때문이다. 자그만 가슴은 季節 바꾸일때마다 처지갈 江南의 希거운 봄뭇의 다사로움에의 希望譜가 서리어잇기도하겟지. 다음해봄의 絢爛한 이야기의 序曲을 타는 挽歌! 봄을 부르는"도나"이 그립고나. 나는 제비를 봄과 아울러 사랑한다.

나도제비의 노래를 부를수업슬가. 그러거에 오늘의 헤어짐이라는것도 비치 밝기때문에의 것(影)을 그림자의 슬픔일것이다.

이번 漂泊에서 初秋의 산들한 大氣와 太陽에 싸혀 丫와의 든 美麗한 노래책, 詩人·永郞의 『모란』어라는 아름다운詩중데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感嘆하기도 하엿다. 파르나시앙詩人들이 조와하든 뉴앤스가 곱고 後期印象派의 綺麗에서보는 線의 薰香을 가득이 실은듯한 부르지즘이엇다.

이와따로히 가을의 細愁를 薔薇로 纖노흐려는것은 새로운世代의 歌手로의 즐거운 自覺어기때문이라고나 할가。 우리들의 靑春의 旅路! 노래의 故鄕불 차저서 友情의 眞實이 피노은 憧憬의 … 다가 … 것을 알게되는것이 … 나는 눈나리는 … 하라면 나의 장미꼿이 … 치는 情炎는 조각조각의 紅玉처럼 … 안는다。(三五·打鐵의 말)…

漢詩募集
題…重陽
押…香
限十一月十日
(薄謝進呈)

一漢詩一
題 白頭山
押 峰
稍閑 考選
佳作之一之四
大邱府南山町六五六 李山 許 善

太初元化費陶鎔
權威三千作祖峯
武庫霜翻森釼戟
仙盤玉立削芙蓉
燕丹舊國孤煙沒
鴨綠寒波落照春
設使吾生重有咸
神檀功業渺茫蹤

暮學館筆記 (十)
新羅의三質
一蒼匡學人一

新羅王朝에서 外國에 質子를보낸일이 세번이잇스니 첫번은奈勿王三十七年 高句麗에 王이왓슬때에 伊飡大西知의子 實聖을 볼모로띠려보낸것이오 둘재번은實聖王元年에 倭國과通好하자奈勿王子未斯欣을 볼모로보낸것이오 세번재는 同王十一年에 또奈勿王子卜好를 高句麗에 볼모로보낸것이다

그런데 當時新羅의 國際關係를상고하여보면 我國에 王子宗親을 볼모잡힐일이엇다 우선高句麗와의 關係로말하면 助實十六年에 高句麗가 北燕을侵한일이 잇섯스나 그것은 高句麗가 遼西地方 卽今咸鏡道方面을 經由하야 新羅의 北邊인 比列忽卽今安邊等地를 侵犯한 一時的의 일이다 東濊貊의 間에는 梁浪,帶方,百濟等이隔하야 風馬牛不相及이로 지내든 形便으로서 어쩌다 이런일이 생겻고 이로부터 百四十餘年이나 經過한 奈勿王時 三十七年頃에는 梁浪,帶方이 이미滅亡하고 高句麗와 百濟가 境을接하야 干戈相尋하는 亂國인故로 此時 句麗使가 新羅에 入한것은 正히 兩國의和好를 圖하야 百濟를牽制코저하는 政策에 出한것이니 新羅가 高句麗에 볼모를 보낼까닭이업는일이오 또 倭國과의 關係로말하면 始祖時代부터 屢屢侵犯을 當하엿스나 倭兵이 至하면『閉城固守』하다가 『糧盡師老』하야 도라가게되든때에 出兵追擊하는것을 傳統的戰略으로用하야 항상勝利를 거두어왓스며 沾解王時에 舒弗邯 于老가 倭軍에 詔하야 燒殺을 當하엿던일이잇스나 이것은 于老가 … 口舌로서 觸禍하야 너무 大膽스럽게 一身으로써 不測의 地를 試賦하다가 禍를 當한것이오 兩軍相當의 結果戰敗에 依하야 그러케된것이아니다 訖解나 奈勿王朝에 이르러서는 九年에 倭兵이 大至한것을 斧峴東原에서『殺之殆盡』한일이잇고 同三十八年에倭兵이 또와서 金城을包圍하엿다가 功이업시 退軍하는것을 獨山에서 迎擊하야 크게破한일이잇섯스니 이로부터 겨우 十年되는 實聖元年에 通好하자 質子를 보낼理由가업고 또 實聖十一年으로 말한대도 羅麗의情勢가 變한것이업스니亦是送質할까닭이업다

그러므로 新羅의 三回送質은 外勢에 끄을려서된것이아니오 奇怪한 內政上의 關係로부터 發生한事實이다 원래 奈勿王은 角于末仇의子로 味鄒王의 壻이오 實聖이 또한同王의 女壻이면서 味鄒王의 女壻인故로 그는 身長이七尺이오 明達하야 遠識이잇다고 일컷든 爲人이다 新羅의 制度國法이王의女壻이면 王位를 繼承할資格이 잇는것인데 그爲人이 그와가티 凡常치 안흔故로 奈勿은 將次 自己에게 不利할것을 憂慮하야 國外에 放逐하는 陰謀로서 高句麗에 보내두엇든것을 看破할수잇고 實聖이 高句麗에流寓한後 十年이란 長歲月을보내다가 겨우 歸國하엿든데 그翌年에 奈勿王이 薨하자 王子가 三人(訥祗,未斯欣,卜好)이나 잇는데도 不拘하고國人은 實聖을 擁立하엿스니實聖의 活動이 얼마나 非常하엿든것을 推測할수 잇는一方에 從來 奈勿이 實聖을 疑忌하든것도 無故한일이 아니라고 하겟다

그런데 實聖은 卽位하든翌月에 奈勿王의 第二子 未斯欣을 倭國에 보내버리고 十一年에는 또 奈勿王의 第三子卜好를 高句麗로 보내버린것은 全히 奈勿王이 自己를 國外로 逐出하엿든 怨恨을 報復코저한 行動이라 할것이다 그런데 實聖의 報復心은 여긔에만 그친것이 아니오 奈勿의 後를아주滅絶시켜버리고저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奈勿의長子訥祗는 自己의 女婿인에도不拘하고 自己가 高句麗에잇슬때 親信하든 麗人을招하야 訥祗를殺害하라고 密囑하고 한편으로는訥祗를시켜서그 麗人을中途에가서 迎接을 하게하엿다 이것은麗人에게 下手의機會를 맨드러 주려는것이엿섯다 그러나 그麗人은訥祗를맛나는마당에 그의 風神이 爽雅하야 君子의風이 잇슴을 보고 참아害치지못하야 實聖의密囑을 바른事實을 일러주고 도라가버리매 訥祗는 그길로도라와 實聖을弑하고 王位에卽한後卜好 未斯欣二弟를 모다召還하엿다 이러한 事實을보면 三回의送質이 모다內部의 私怨私恨으로부터 그敵對方을 國外에 逐出한것이오 外國勢力의 壓迫에 依한것이 아니다

新刊紹介

▲運輸界 十月號 新義州業者紹介號 京城府花園町七九 運輸通信社 振替京城二〇九七六番 定價五十錢

▲靑年太陽 十一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一四 日本靑年文化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眉愁 尹白南著(目次) 風前燈火 百發百中 緣分 壬辰亂以前 兵亂 東風 報復 犧牲 屍體는어대로 復讐 사랑의힘等 發行所 京城府慶雲町九六 大衆書屋 振替京城四二七四番 定價一圓

▲鑛業朝鮮 十月號 探鑛問題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一丁目 任家빌딩 朝鮮産業金組合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文藝術 第三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出版部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一部五錢

▲獨學通信 第五十四號 發行所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一部五錢

結核撲滅問題
—社會醫學的考察—
(五) 文仁柱

帝政露西亞時代에는 結核에對한 아모런施設도 업섯스나 쏘베트』共和國이된後로 처음으로結核撲滅鬪爭이 正式으로 計畫된것이다. 革命初期에는 舊地主 資本主의 住宅 別莊等이 蘇聯國民의 結核療養所로 使用되엇스나 現今은 都市와農村에 多數의 結核診療所가 設立되어잇고 一切의必要한設備가 完備되어잇다.

蘇聯에는 여러가지 結核機關이잇스니 結核診療所에서는 患者의 診察뿐만아니라 治療도바들수잇다. 治療는 無料이며 國家保險局 或은工場에서 支出한다. 結核診療所를通하야 活動進行性結核患者는 病院 療養所에 入院治療시키며 巡廻看護婦는 患者의住宅의 衛生狀態에 對하야 注意시키며 患者가 家族과同居할때에는 家族에게 結核豫防에 對한知識을가지게하고 醫學的으로 指導한다. 그리고 結核豫防所診療所에서는 그地區內의 모든 結核患者를 登錄하야 治療하며 必要에應하야 療養所에收容하며 이診療所에 登錄된患者는 그生活方法及 勞働力에關한 指導를 박게된다.

診斷所에서는 結核을 治療하지안코 診斷만을 專門으로한다 經濟的理由를 超越하야 結核의 治療를爲하야 正當한 適應症을 決定하야준다. 또 晝間療養所에서는 腺病質인 兒童을·晝間만 收容하야 一定한醫學的規律미테서 營養學的으로 完全食料 肉體的訓練과授業을 박게하며 成人은治療하야는 어너程度까지 勞働을 繼續할수잇는 結核患者는 半日만勞働하고 나머지數時間을 이곳에서 科學的으로 嚴密한治療를박게한다. 또 夜間療養所에서는 一日의 勞働을할수잇스나 勞働後라도 休養과治療를 바들必要가잇는 輕症患者를 夜間동안만收容한다 이晝間 夜間療養所는蘇聯의 자랑이라고할수잇다 結核療養所에는 重症患者만을收容하야 治療한다.

蘇聯의 結核撲滅對策을 다른 國家에比하야 非常히 發達하얏스며 將次 더욱發展하리라고밋는다.

이제 各國의 施設을 參考하야 結核撲滅上 有效하다고밋는 여러가지 施設을 簡單히 記述할가한다.

一、患者의家族과其他에對하야 그生活環境의危險잇는患者를 그生活環境으로부터 隔離할것. 卽開放性 進行性患者는 그經濟的能力의有無에不拘하고 結核病院에 入院시킬것.

二、治癒可能한者 特히輕症患잇는者 早期輕症의患者를 收容하야 合理的으로 治療하는 結核療養所가 必要하다. 이것도貧窮患者라도 無料로 治療를 바들수잇도록 해야할것이다.

三、結核相談所가 必要하다. 이것은 結核撲滅을 爲한 基本的機關이며 結核의早期發見하야 그病의治療 或은 病者의指導에關한指導를하고 그病의輕重에따라 結核病院 或은 結核療養所에 收容하도록할것이다.

四、結核患者訪問看護婦制度가 잇서야할것이다. 이巡廻訪問看護婦는 患者의家庭을 訪問하야 그生活環境及經濟的條件을 調査하며 患者及그家族에게 治療及病菌傳播防止方法을 實際的으로 指導하도록할것이다.

五、結核患者屆出制度가必要하다. 이制度는 患者의 不適當한 環境條件을 發見하야 可及的으로 그것을 除去할수잇고 또 患者와接觸하는者를 早期診斷할수잇슴으로 結核對策上 緊要한 一手段일것이다.

以上으로 社會的施設을 大略 起述한바이다. 如何히 多數의療養所가 建設된다고하드래도 그것이 有料患者만을 取扱하고結核患者의 大部分을 占有하고잇스며 또傳播의危險이 만흔 貧窮患者를 收容하지안는다면 療養所建設의 意義는 半減될것이며 結核撲滅의 達成은 不可能할것이다. ─終─

讀者社交室

▲九月二十三日 讀者社交室을 通하야 發表하옵신 全南長興S生에게告함

貴下께서 讀者社交室에 나신 通文官試驗準備書籍을 生이買受코저 玆而社交室을 通하여 仰告하오니 奔忙하옵신中 未安千萬이오나 左記住所로 一次通知하여주옵시면 大端感謝하겟습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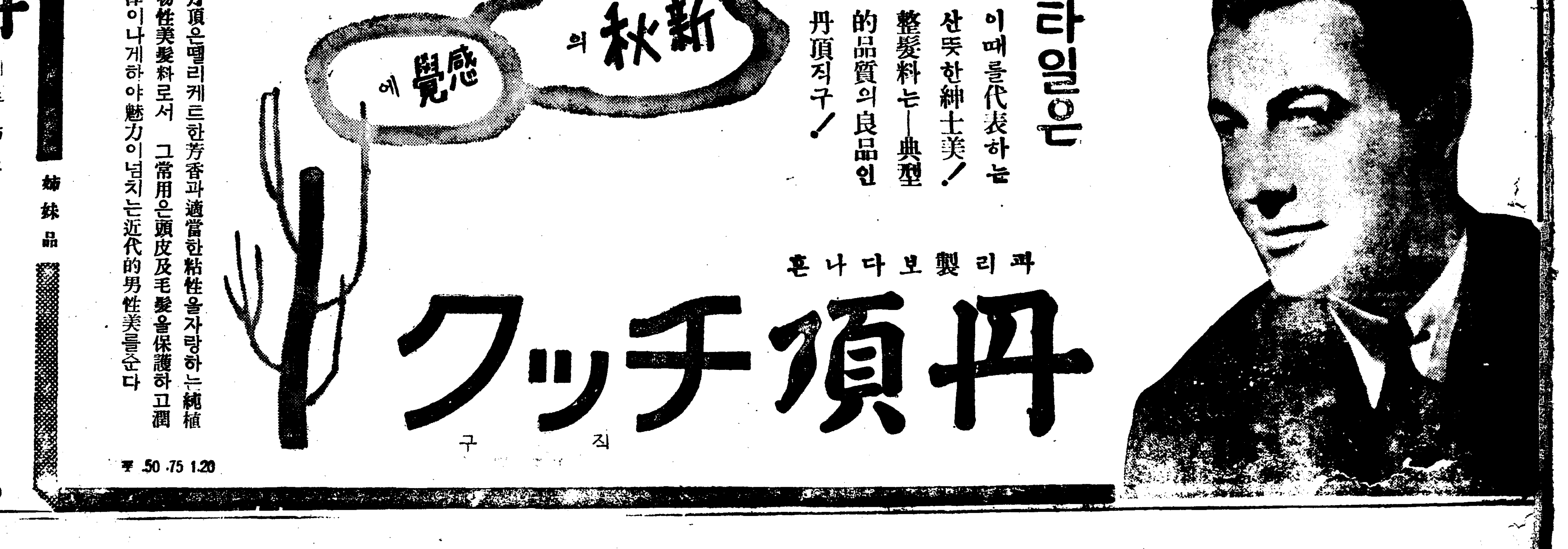
黃海道平山郡安城面橫川里一八 劉天一

▲平北寧邊及 平南江西 諸位께 設問합니다 貴地産 백해(저)를 多量仕入코저하오나 取引先을 未知하오니 葉書로 左記住所로 下敎하여주시는 同時에 包裝及 重量 現時價等 諸取引方法을 明示하여주시오면 大端히 고맙겟습니다

平南谷人上次里 許小山

▲平壤箕仁商業學校卒業하신荒土香金元燦氏의 住所를 알려주시면 千萬感謝하겟습니다 그리고 同氏의職業도ー。

京城府仁義町三九 崔銀涉



連載野談 （一四七） （不許轉載上演）

布囊記

申鼎言 作 / 金熊超 畫

마저숙기소원（六）

리선전관이 그 창두와 동행하야 경성에 이르러 그 창두의 주선으로써 조용한 려염집에 사처를 정하얏다。

그리고 리선전관은 그주인에게 그 창두의 래력을 자서히 들엇다。

그주인은 창두의 신분을 자서히 아는양으로써、

「그 창두는 리판서댁 씨종의 소생으로써 그 여러형제와남매가 모두 훌륭 그매씨댁에난 마마님댁。훌은 큰댁。훌은 우원잇고 그뿐아니라 여러대를 내려오며 거행을하게되는 계로 매우 신임을 밧게되어 안팟게 모두 긴한 모양이라 합니다。」

하며 그창두의 족보를 외오듯 이 전후 래력을 자서히 설명하얏다。

에를 이술리잇나?。」

하며 그말대구는 분목이 반상의 구별을 따라할지라도 그 대접하는 양은 다가톤 친구나 다름이어서 친근하게 별부럿다。

「소인이 맛당히 뫼실을 아니 보고 뫼시고 오기까지한 이상에야 어찌 범연하오릿가?」

하며 그 창두는 주선하는 일이 절단코 틀리지 아니할것을 장담하얏다。

리선전관은 그 창두가 장담하는 말을듯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어 돈열양을 내노흐며、

「여봐!。나로하야금 불안도록 보고 저러케 애를 쓰니 그 큰은혜는 나종에 갑흘날이잇것지만은 우선 이번변치 못한것이라도 주는것이매 이리저리 단이는중 시장하거든 술잔가시나 해!。」

하며 그 창두에게 그돈을집어 넴기를 권하얏다。

귀열도 가지아니하는것을 속으로 우섯다。

그러나 리선전관은 그 창두가 주는돈을 밧지아니하는것이 자긔의 마음과 가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역이여 더욱 긔특히 생각하고 다시 그 돈 열량을 집어 그 창두의 손에 쥐어 주며、

「이것봐! 이게 내의 정이야 사람의 정을 막는법이 세상에잇나?」

하며 도루 밧기를 간절히 권하얏다。

그 창두는 마지못한 긔색으로서 그 돈을 집어 꽁문이에 차면서、

「그처럼 생각하시는것을 안밧는것도 황송합니다。그러하온데 가지고 오신돈은 얼마나 되시는지。여러대에 청을 하자면 그래도 선사할 미천은 좀 잇서야 하올터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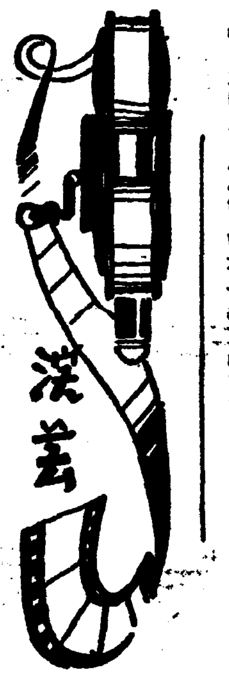
하며 리선전관의 주머니속형편을 탐문하얏다。

「망마지기를 톨톨 따진것이 겨우 삼백양!。」

「그만하면 쓰겟습니다。」

하고 그 창두는 리선전관의주머니속을 자서히 알뒤에 자리를 일어섯다。

그런데 그창두는 리선전관을 작별하고 갓뒤 하루 이틀 사흘 이언 오륙일이 지냇스나 아무런 소식이 묘연하얏다。



★曆★ 十月廿九日（木） 陰丙子九月大（十五日） 甲申·水·參·開

●宗社參恢義衣上樑民嫁開市에宜함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二十四日）

演劇協會創立公演 『守錢奴』를보고 （二）

羅雄

野生的劇詩人쉑의쓰피어는 俳優라는 身分과 深奧한詩人的感情에서 上演劇本을써슬때 情慾의 藝風을 자아내고 和氣藹藹한 숨사임은 부드러운旋律로 兪호는가운데 觀衆의 心情을 꾀둘르는感情과 그유모아와 苦笑와 抒情詩味 또는 野趣味等을 그를富하고 優麗한藝術的香氣가 演劇의 根本的統一現像인 엘쓰라시를 가추운데 高尙하고 典雅한 藝術的芳香과 魅力을느끼게 하며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吐乾한 生命感情을 부어주지안는가

이말은 또한 모리엘에게도 適用된다

그도 쉑쓰피어와가티 俳優로서 劇場에서 上演臺本으로 戱曲을썻스면서도 恒常高潔한藝術的純情을 保持한것이다

쉑쓰피어의劇을「드름게 보는 노픈文學的價値가잇는 演技中心의 即興詩」라고하면 모리엘의劇도 演技術에 基礎를세우라는 目的에서나온것이라는데서 說明해야할것이다。勿論 演協의「守錢奴」의 上演의 意義와 古典劇의 現代上演의意義와 作品의內容等을 等閑視하는바는 아니나 나는 이러한常識的인以外에 오늘의朝鮮에서 上演되는演劇의 極度의貧血症을 救出할當面問題가 이統一的인俳優와觀衆을 憧憬境에 沒入시킬만한 엘쓰라 시에 잇다는것을 演協公演에서 자저볼수잇섯다는데 나의興味의焦點이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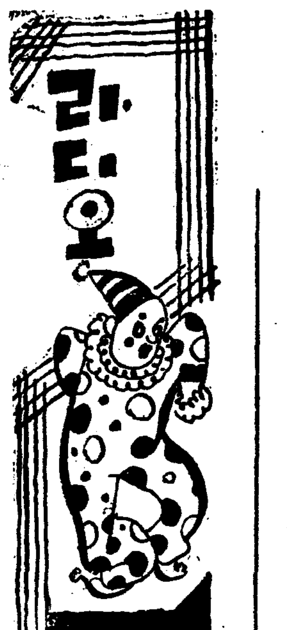
모리엘은 十七世紀에잇서 루이十四世가 「朕은國民이다」하고 專制政治를 行하엿슬때 잇서은 喜劇作家다。當時 佛蘭西의 國家의 增加로 벨사이유 宮殿을 建築하고 文藝를 獎勵하여슬때 悲劇에 콜네유·시라누와 일홈을 떨치섯고 모리엘은 喜劇으로 이름을 날리엿다

이때를 얼마간 먼저한 英國의 르네산쓰의 勃興精神을 地盤으로하고 人民의深所에서 자라난 쉑의쓰피어가 演劇으로國民全體의 發潮한 氣分을 表現한것과가티 佛蘭西에잇서 모리엘도 劇團을 引導하고 直接出演하야 人民에게 公開하여서다 勿論 그가 支配階級에서 바든 物質的支持는 컷섯고 貴族또는僧侶사이사이의 弄齋及宮廷을 풍하야 直接出演도 하엿스나 이것은 僅히 暫時엿다。또 弄齋는 觀念的으로는 國民全體를 代表하엿섯슴으로 當時成長하는 市民의 敎會及 貴族에對한 숨은 抗議가 모리엘의 作品中에 浸透함을 可能케도하엿스나무엇보다도 그가 人民의 深處에서 呼吸한 것과 直接劇場에서 上演臺本으로 戱曲을 썻다는것이 그의作品을 더 新鮮하게한것이 事實이다

쉑쓰피어와 모리엘의 對照하는 兩者를 同一한 藝術的水準에 놋는다는것은 아니다 前述한兩者의 環境과 氣質의 相似한點을드는데 不過하다는것을말해둔다。

當時 佛蘭西演劇이 伊太利、스페인의 影響을바덧스면서도 伊太利의演劇이 全人民을 觀衆으로하지안코 極히적은 貴族社會의 從屬된 大規模의 宮廷劇場의 專用物이엿든것과는 事情이 다르다 또伊太利의 이宮廷劇場과함께 人民의演劇이엿든 콤메디아·델·아ㅡ레가잇섯스나 모리엘의喜劇은 이콤메디아·델·아ㅡ레의 卑俗한內容을 藝術的高貴에다 發展시킨데 그의眞價가잇다고 생각한다。

古典主義를 崇尙하든 當時作家는 主題나 作中人物로나 偉大한悲劇을 構成할라는 理想으로부터 材料를 希臘로마의것을 取材하야 端整한 形式으로 表現하라하엿스나 모리엘은 이와反對로 自然에 背馳되지안는劇을 理想으로하고 人間生活가운데 性格描寫를 主로할때 이엿슴으로 各樣의 氣質、習慣을 如實히 描寫하랴하엿다 그의時代와 그自身의生活이 浸潤하다 그의喜劇을쓸때 그背後에 숨어잇는 作者의 痛烈한 諷刺 自嘲와함께 飄逸한 作家氣實을 엿볼수잇다 喜劇을 쓰면서도 決코 喜劇味로 떠러지지안코 眞實한態度로 性格을 追求描寫하는데 모리엘喜劇의 面貌가 躍動한다。作中人物이 조곰도 抑制로 우키라지안코 自然스럽게 나가면서 보는사람으로하여곰 우숨을 誘發하고 그리면서도 기피숨여드는 우름과 諷刺와 揶揄를 던저주는데모리엘의유니크한 맛을차즐수잇다 『守錢奴』에서도 모리엘의가진 우숨가운데숨은 尊富한機智와横溢하는 諷刺를 차즐수잇다。



二十八日（水曜）

◇午後六時 童謠 愿慕함으니는호랑이 鄭奎浣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學習과成就」 曹專敎授 金興濟

◇同七時三〇分 講演「都會人과借家問題」 辛泰嶽

◇同八時 라듸오·드라마「藝術院日記」全景 放送劇協會 演出 李瑞求 效果 效果班

◇同八時三五分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朴蘭玉 徐山玉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沈淸歌 林小香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淸元童曲

◇同七時三〇分 （大）講演

◇同八時 （大）軍歌

二十九日（木曜）

◇同八時一〇分 （大）講演

◇同八時二五分 （大）浪花節

◇同九時 （大）라디오、스켓취

◇午後零時五分 花草四巨里外 一、花草四巨里 二、웃자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타령 高桂仙 高飛鳶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어린이와齒牙」 世專齒科敎室 鄭保羅

◇同六時 어린이科學「별이야기」（二） 韓球表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氣候」

◇同七時三〇分 講演「模範農村을訪問하고서」（一） 京畿道農會技手 南基徹

◇午後八時 獨唱 一、나를불러다오…헨델作曲 二、薔薇…슈망作曲 三、谷間의靑草… 四、비오는밤…李興烈作曲 五、라스파놀라…커아라作曲 六、사랑의노래…브람스作曲 피아노伴奏 李興烈 安輔承

◇同八時三〇分 雅樂「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映畫이야기「엉덕우에소나무」 朴晶遠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俳諧

◇同六時（名）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同八時（大） 觀艦式實況放送

◇同九時（東） 連續探偵드라마（第一夜）

三十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大）經音樂 一、流線型자스 二、東京의夜景 三、木曾노나가노리상 四、야쓰상 五、鹿兒島小原良節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作曲編曲及指揮 服部良一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明朗한生活은明朗한부엌에서」 朴貞淑

◇同三時一〇分 （東）敎師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〇〇 兒童劇「왕곰」全一景 貞姬……韓寶瓏 順玉……金鈴蘭 惠順……韓瓊錫 貞姬어머니……李白卿 뒷집할아버지……金銀星 指揮 두루미 效果 金相德 劉根春 作奏 金德子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敎育勅語渙發日을當하야』 第二高普 鄭義燮

◇同七時三〇分 講演「京畿道農村을訪問하고서」（二） 京畿道農會技手 南基徹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公道難 （나）唱劇調…春香傳中 獄中歌 丁南希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楓祭 朴英鎬詞 金松奎曲（金） 二、알어달나우요 同右（李） 三、꼿서울 朴英鎬詞 古賀政男曲（金） 四、感激의그날 朴英鎬詞 金松奎曲（李、金） 五、離別前夜 同右（李） 金海松 李蘭影 DK管絃團

◇同八時五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韓文鉉

◇同九時一〇分 압산타령 一、압산타령 二、뒷산타령 三、경발림 四、선소리 金順紅 金蘭香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十七） 櫻谷榮

◇午後零時五分（大） 經音樂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同一時 家庭講座 吉田直

◇同六時 이야기 宮崎藤作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河野省三

◇同八時（大） 寄席오小說 千葉

◇同八時三〇分（東） 詩吟 雨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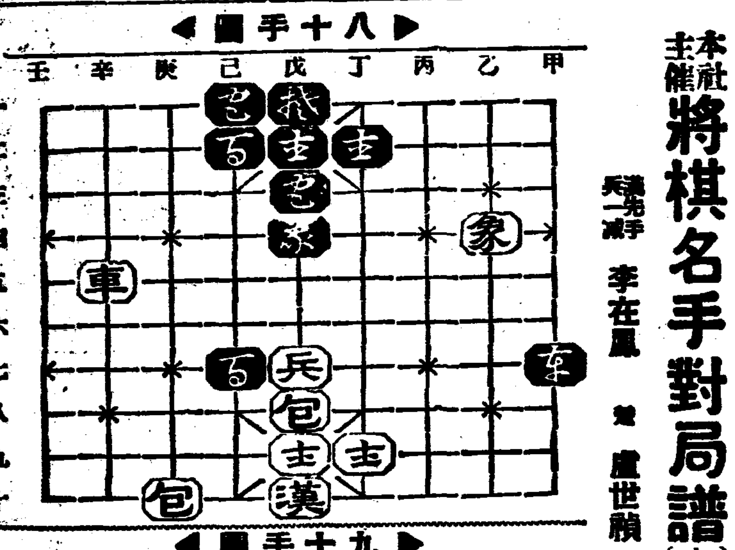
◇同八時四〇（東） 地唄 米川文子外

◇同九時（東）（連續）探偵드라마 長江衛外 （第二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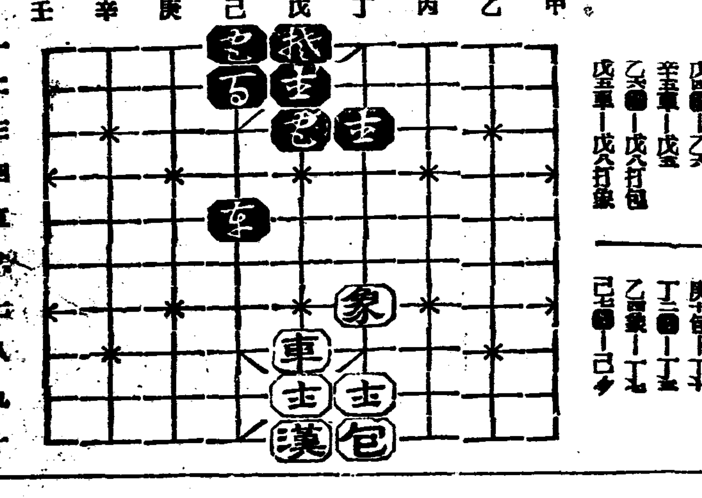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九）

先手漢 李在鳳 / 後手楚 盧世楨

◀第八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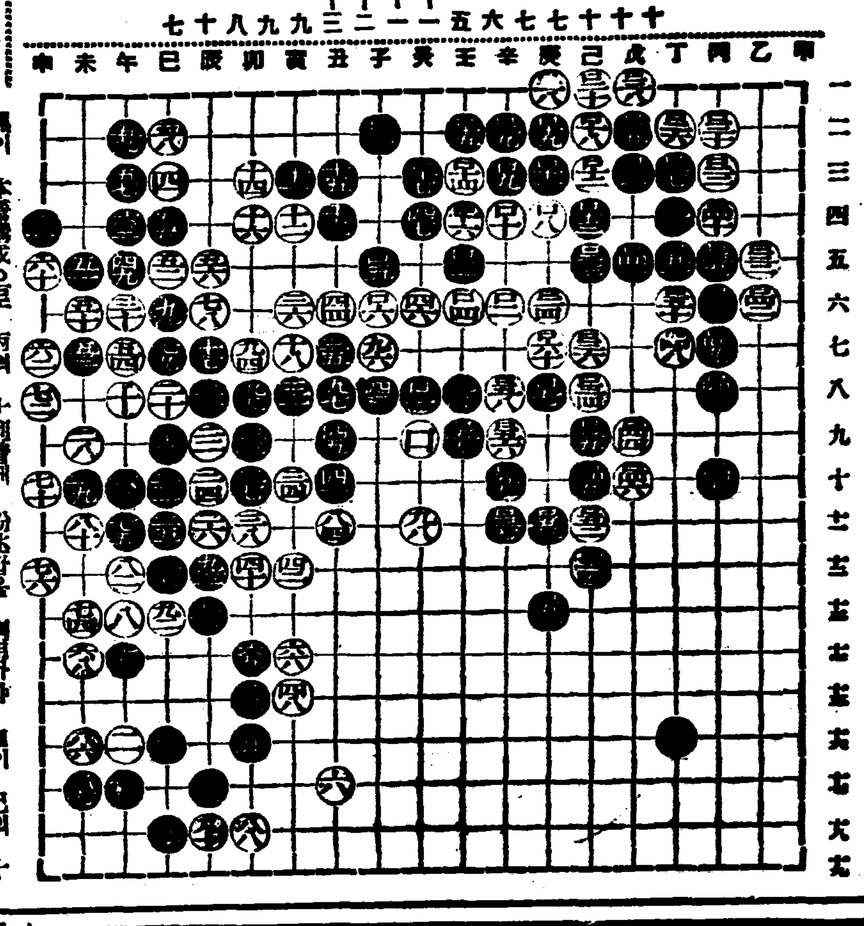
◀第九十手圖▶



戊七兵ㅡ己七打馬 甲七象ㅡ己七打兵
戊四包ㅡ乙六 庚十包ㅡ丁十
辛五車ㅡ戊五 丁三車ㅡ丁五
乙六包ㅡ戊六打包 乙四象ㅡ丁七
戊五車ㅡ戊六打象 己五ㅡ己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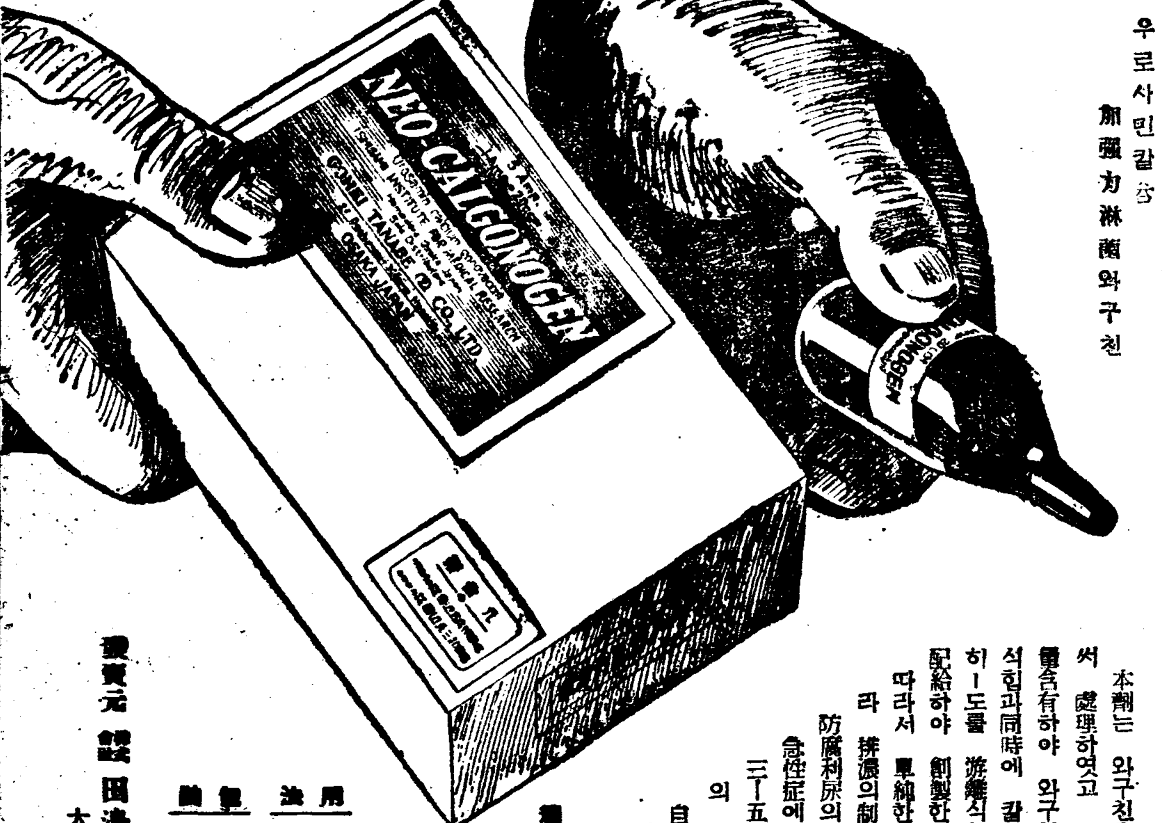
柊林스넬 『폴·포ㅡ드』의新作 『北斗七星의一擧』 撮影을 하고잇는 『포레스톤·포스타ㅡ』 背後에 비치는일중中 『포ㅡ드』監督이 보인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0─



● 己의十 ○ 戊의十 ● 丙의十 ○ 丁의七 ● 丙의七 ○ 丁의六 ● 丁의五 ○ 己의十一 ● 庚의十一 ○ 己의十二 ● 庚의十三 ○ 辛의九 ● 壬의九 ○ 辛의八 ● 辛의十 ○ 庚의七

蔡極文氏評日 黑이 本譜構成으로 丙의十列着에 紛糾함을 利用하야 白이 己의十一로 堅實하니 黑中央大陣에 欲望이 重疊이라 能히 奇門이 在何方인지 試眼猛省이다



淋疾

우로사민칼숨 加强力淋菌와구친

淋疾과가튼細菌의感染에依하야惹起하는疾患에細菌學的療法ㅡ即와구친療法이가장適切함을學界에서共通하게承認한바이다

本劑는 와구친을 特殊方法으로써 處理하엿고 그抗原質을 數倍量含有하야 와구친의効果를 增張식힘과同時에 칼숨及 호ㅡ루무알데히ㅡ드를 游離식히는 우로사민을 配給하야 創製한것이다。따라서 東細한化學的藥劑와 달라 排濃의制止、疼痛의鎭靜、防腐利尿의 作用이著大하야 急性症에 잇서서는 不過三ㅡ五回의注射로 濁尿의 淸澄을 볼수잇고 自覺症狀의 消失을 認定함을 엇는다

適應症 淋毒性合併症 丸炎、副睾丸炎、攝護腺炎、膀胱炎、子宮內膜炎、卵巢炎、關節炎等

用法 一回一筒（二〇cc）宛隔日에 靜脈에注射

包裝 二〇cc 五筒入 十筒入 三十筒入 五十筒入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NC78

네오가루고노ㅡ겐

支那名藥 回春의世界最高權威! 春劑

（僞物注意） 安東縣興東前街九十一號 振替京城二三〇三八番

中國名藥 淸導補腎丸

古來로回春劑는支那가斷然第一

主治 短○早漏 陰萎 不夢 遺精 精起

모든性的疲勞와 百藥이無效하야 多年呻吟하시는분이어! 조곰도落望말고此中國名藥을服用하라 萬一試驗이 百發百中이니 조곰도疑心말고此名藥으로完治의快樂을得하시라!

半個月 金三圓五十錢 一個月 金五圓 二個月 金十圓

先金則送料店負擔急送 代引則送料實費加算 （說明書無代進呈）

滿蒙特産物商會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鄕을莫論하고 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ㅡ手로引受、綿絲는供給하여드림으로서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京城府黃金町五電停前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平壤府櫻町五三朝日軍手營業所

기침에 달고 먹기쉬운 푸레 코데친 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藥店에잇다

憂鬱症

武田長兵衛商店

神經衰弱 高齡期 高血壓 生殖腺ホルモン

不眠症 記憶力減退 心悸亢進 性障害 에잇서서生殖腺호르몬不足缺乏에基한心身의初老現象 動脈硬化腦溢血後의半身不隨

スペルマチン

스펠마틴은…… 生殖腺호르몬 分泌減退에因하야오는 諸種性疾患에 著効를 보이니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36-880(10)

團成社

十月廿八日부터三日間大公開 最大巨篇鑑賞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 正午十二時부터 二回 映 三回 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五錢 階下十五錢均一

松竹蒲田特作現代映畫名作은트版 現代名篇 山は夕燒 佐佐木恒次郞氏 監督 高杉早苗 德大寺新 主演 大山健二氏 吉川滿子 望月典子 六郷淸子 共演

梗概 佐佐木監督力作인名篇이다 蒲田幹部連이總網羅하야高杉早苗孃과新人德大寺兩人의熱熱한技演으로發揮하야製作한名篇

부리태비作無聲映畫 레뷰映畫 赤い風車

（廿九日부터） 水谷八重子主演 未來의世界、怒濤의노래、雪鳴 大尉の娘

新興키네마映畫 冒險王달마지 冒險驚嘆의白眉篇

第一劇場

廿六日부터三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半午後一時半六時卅分

◇吉例漫畫大會 極彩色 老人敎育 自動車展覽會、感覺派萬華、사러잇는名畵、南方의꿈 파라마운트特作漫畵 極彩色 베데이뿌뿌主演作漫畵 리차ㅡ드달마지푸로特作品 리차ㅡ드달마지主演

桃花劇場 電話二三三番

바다여말하라 監督…李圭煥氏 主演 沈影 玄舜英 徐月影

朝鮮鄕土藝術의精華 萬古烈女春香이에愛人李道令과의永劫不滅生活篇!! 靑鳥映畫社超特作品 그후의李道令 撮色監督…李圭煥氏 出演 張翰 楊白娥 卞鍾根 李進 秋鳴林 李三水

五洋映畫超特作品 靑春의十字路 全十卷 監督…安鍾和氏 主演 李源鎔 朴齊行 金蓮實 申一仙

三大傑作朝鮮映畫大會 金剛키네마社超特作品

◇十月二十六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上映 夜七時、晝一時二十分始映

京城版

신정예기가 ...

이십팔일오전한시경 시내신정(新町)십칠번지 대식(大植)의집에 예기, 경장기로 잇는데지(大[illegible]) 「기요코」(?)는 「코마쓰」[illegible] 목을 찌르고 죽으려다가 그도 자기 이루지못하고 동무들에게 발견되어 곳신정부립병원(新町府立病院)에입원치료중인데 자중려이다 원인은 실연인것갓다

京城府內의死亡者 半年에六千五百餘

日本內地人에는消化器病이斷然首位

朝鮮人엔神經病最多

경성부에서 조사한바를보면금년일월부터 륙월까지 반년동안에 경성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총수는 륙천오백사십팔인인데 조선사람은 오천사백오십칠인(남자이천구백이인 녀자 이천오백사십구인)이며 일본내지인은구백구십칠인이(남자오백오십오인 녀자 사백사십二인)이다 죽은 병을보면 조선사람은 신경계병(神經系病)으로 죽은사람이제일만코 그다음으로는 호흡기병이며(呼吸器病)일본내지인은 호흡기병이 제일만코 그다음은 소화기병(消化器病)이다 호흡기병으로죽는사람의 수효는 조선사람은 한살로부터 열아홉살까지가 칠백십사인 스무살로부터삼십구세까지가 일백팔십칠인이며 일본내지인은 한살로부터 열아홉살까지는일백오십오인 스무살로부터 삼십구세까지는 팔십삼인이다.

각종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효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가튼데 호흡기병으로 죽은 사람의 총수는 일천륙백사십삼인이나되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총수는 삼백명이다.

◇…조선사람사망자총수 오천사백오십칠인가운데서

▲신경계병(神經系病)은 남자 팔백사십팔인 녀자 칠백사십칠인으로 합계 일천오백팔십오인

▲호흡기병(呼吸器病)은 남자 칠백구인 녀자 륙백사인으로 합계 일천삼백십삼인

▲소화기병(消化器病)은 남자 오백칠십인 녀자 오백칠[illegible]으로 합계 일천일백[illegible]

▲전신병(全身病)은 남자 일백팔십오인 녀자 일백오십칠인으로 합계 삼백사십이인

▲전염병(傳染病)은 남자 일백[illegible]인 녀자 [illegible]인으로 합계 [illegible]

▲기타 팔백칠십구인이다

◇…일본내지인의 사망자총수는 구백구십칠인인데 그가운데서

▲호흡기병은 남자 일백[illegible]인 녀자 [illegible]인으로 합계 [illegible]

▲소화기병은 남자 [illegible] 녀자 [illegible]으로 합계 [illegible]

▲전신병은 남자 [illegible] 녀자 [illegible]으로 합계 [illegible]

▲신경계병은 남자 [illegible] 녀자 [illegible]으로 합계 [illegible]

▲전염병은 남자 [illegible] 녀자 [illegible]으로 합계 [illegible]

▲기타 이백[illegible]인이다

사비는 시일만오천원으로 철근콩크리트의 삼층을지게되것이다

醫生이 번診斷書 極히不正確한것

神經病이 만흔것은미들수업다

京城萩野衛生課長談

조선사람의 사망자는 신경계병이 제일만흔데대하야 경성부 추야(萩野)위생과장은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조선사람의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그불확실한가량은 의생(醫生)들이 진단을 부친것이므로 실상 죽은병은 신경계병이 아닐지라도 죽는 당시의 증세(症勢)만 보고서 걸핏하면 신경계병명을 부치는것이 통례입니다 호적과(戶籍課)에서 조사한수자로는 조선사람의 사망수는 신경계병이 만흔듯이 되여잇스나 의학자의 조사로본다면 그수효가 정확치안흔것이 만켓습니다 운운

貞洞公普校舍 廿九日上樑式

귀보=시내봉래정(蓬萊町)뒷산에 신축중이든 정동공립보통학교(貞洞公普校)는 이십구일오전 열한시에 상량식(上樑式)을 거행하기로되엿다 이공사는 금년 륙월팔일에 시작하엿는데 공

멀정히生存한本妻 民籍面에는死亡

十八年만에이제야發見한本妻

男便거러仁川署에告訴

【仁川】호적상으로 죽은지실로 [illegible]만에 복적하야달라는 안해의 제소장=지난 이십칠일 리천군(利川郡)에사는 오옥영(吳玉泳)(♂)이라는 녀자로부터 류천(柳町)오번지 민윤직(閔潤植)(♂)을 상대로하야자기는호적상 생존하야잇스니복적하야 달라는 기괴한 고소장이 제출되엿다 그자세한내용을듣건대 전기오씨는 민씨의본처로서 이십의 청춘기에서부터 남편은 항상안해에게 불만을품고 잇섯든바 당대의민씨는 구한국시대의 민씨개통의 거족이라 미천출구하려면 용이한사실이라 본처를 바대하고 후처를 구하든중에 당대의명창 박춘재(朴春載)의매제 박헌경(朴憲卿)(♀)이를 알게되므로부터 쉼마리가 업키게되엿이다 민씨는전기박씨를 알게되자 그의친정경성부락원정(京城府樂園町)일백오십륙번지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정하고 달콤한 생활을 계속하얏스나 세상에 드러내노코 지내지 못하는것을 불만히 녀하고 그의본처 오씨를 감언리설로 꾀이여 리천(利川)친정으로 보낸후 그기회에 지난 대정륙년팔월 이십사일 경성부청에 오씨의 사망계를 제출하야 제적식힌후 전기남녀는 인천으로 전리하는동시에 소화삼년삼월이십사일부로서 당당한 호적으로 박씨를 입적하엿든것이라한다 전기 사실의 전후경위를조사하야보면 박씨는 당대의 미인이요 소지금도 풍만하얏슴으로 당대의 명문가족에 혹가할 욕심으로 호십이라도 출가코자 주선을 하든중에 민씨를 만나게 된것이다 민씨는 본처에 불만을 품고 미천을 구하든중에 박씨를 맛나게된것을 기회로 실회기하고서 구어되는본처를 표면히계속이여 사망계에 진단서까지 첨부하야 제출된것이라 한다 파면 사건의흑막이가장주목되는바로써 매에따라서 경성의각계의 명문의 인물들도 등장될것이라 사계의 흥미를 잇끌고잇다는데 전기와가튼 사실은 인천부호적의 실시이래의처음보는사실이라 여하한 귀말을 지어줄지가장주목된다한다

勞動宿泊所에 金一封의特志

차듸찬 가을바람이 사람의살을 찔르는 이때에 로동숙박소(勞動宿泊所)에서 몸붓처지하고잇는사람들의정경을 생각하야 시량(柴糧)에 무명씨로부터 봉투에 돈삼원을 너어서 경성부 사회과에보내여 로동숙박소에 사용하여달라하엿다

明堂講習所曙光

有志가後援會를組織

【永登浦】시흥군동면봉천리(奉天里)에소재한 명당강습소(明堂講習所)는 오년전에 유지 장선한(張善漢)리상재(李相宰)지태권(池泰權)등제씨의 열성으로 설립된 무산아동 교육기관으로 열렬하게 안되는 가정에 백여명의 남녀아동을 수용하고 강사 리경[illegible](李[illegible])씨 [illegible]의 지부상(支部相)씨가 봉고가사하고 헌신적으로 교수하여오는 터인데 그동안 경비문제로 유지상만온 곤난을비멋슬뿐아니라 관심이 현저하야 해마다 늘어가는 입학아동을수용할길이업서 막대한고통을 밧든중 이것을민망히 넉이든 리면자의한사람인 지태권(池泰權)씨는 가세가 그리넉넉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백사십원을 던지어 팔평반의 신교실을 증축하는동시 운동장도 확신 확장하게되자 씨의 열성에 감격한 일반 주민들은 그대로 수수방관할수업다하야 지난 이십사일 오후칠시에 주민유지 삼십여명이 동강습소에 모이여 여러가지 유지방침에 대한 토의를 한결과 결국후원회를 조직하고 금후완전한 초등교육기관이되기까지 일치협력하기로되여스며 즉석에서 그 자금으로 자발적 기부금을 내인 유지들도만히 잇섯다는데 동 강습소의장래가매우유망하다하며 후원회의간부는아래와가티 피선되엿다고한다

▲會長 李相宰▲副會長●金昶淳▲書記 李廷仁 金炳烈▲會計 李廷儀▲幹事 李松宰 李相宰 李廷和 ▲委員 李林宰 金明達 金秋洞 崔[illegible] 李昌俊 李康善 [illegible] 宋[illegible] ▲[illegible] 閔 張學培 尹明根 李承宰 李[illegible] 宰 朴有[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始興地主等總動員 小作人救濟策討議

同情的態度로、我利를犧牲

賭租減免·事業實施

【永登浦】금년 미증유의 한재 수재 충재로 말미아마 시흥군(始興郡)에서는 농가총호수 팔천팔백사십구호(人口約四萬五千人)에 대하야 한재리재호수가 이천이백칠십일호(人口約一萬二千人) 수재리재호수가 일천이십칠호(人口約六千餘人) 합계 삼천이백구십팔호(人口約一萬八千餘人)의 다수에 달하야 총농가호수의 약삼할에 해당한데 그들리재농민의 대부분은 피해정도가 혹심하야 압호로 엄동은 닥처오고 이어서 명춘의 춘궁을 넘기기까지 정히 호구의 방도가 업는 처참한 정례에 빠저잇슴으로 시흥군당국에서는 농천군수(能川郡守)이하 계원들이 그구제책을 고심연구하든터이대 대체아래와가튼 요항에의하야자력갱생의 의긔를고취식히고 일시적린민(隣憫)의정으로 구라적(救癩的)시설에 끄치는 범위에서 공연히 일반의 의뢰심을길르는등의 폐단을없애이 살기서 전연 갱생의 여력이업는 사람에게 한하야 적당한 한도에서 관게지주의 열렬한사회련대적동정을구하야 구체적방책을 협정하야써 그흉작한 궁상을 타개하는 동시장래의 재해방알에 대처하고저 지난이십칠일 오전십일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농천군수의정중한 인사로 관게지주의간담회가 개최되엿섯는데 그야말로농가비상시에 대처할 중요한문제인만큼 정각전부터 모혀든지주들은 일백오십여명에 달하야 소작료 감면과 리재농민에게식량대부에대한 제안에대하야는 오히려군당국의 제안이상의 관대한 동정심으로 모다 소작인들의 불상한처지를 충은하녀이고 만장의 박수갈채로써 찬성하여 각각 실행하기를 서약하엿스며 따러서 군자면(君子面)리명규(李明奎)씨로부터 농민들에게 제일고통이되는 금년도비료대이만여원을 래년으로연기하야 주는것이 구제의 한방책이 될것이니 군당국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교섭하고 잇느냐고 희망조건을 드러질문하매 군당국자는 그것도물론 고려하야 목하동회에 대하야업 마간 원만되도록 교섭을 진행중이라는 성의잇는 대답이 잇슨후 동오후 세시경에 원만히 폐회하엿다고한다

一、旱水害罹災小作人에게 對한 小作料減免의件 三割以下의 旱水害罹災者에게 對하야는 定租打作을 不問코 小作料를 全免又는一部減免하고 三割以上에對하야서도 可及的小作料減免方法을講究할것

二、臨時食糧貸付其他 副業資金等의貸付의件 年一割以內의 利子로써 自己[illegible]作人에[illegible]限한 [illegible] 主體가되여가지고 正租、雜穀等의 食糧을 貸付할것 食糧以外의 副業資金(叺織資金等)에對하여서도 右에準하야 貸付할것

三、旱害救濟小規模土地改良事業實施의件

(가) 事業의種類 [illegible] 水利施設의改善(貯水池、堤堰、洑、井戶等)을 實施하고 田畓[illegible]을 [illegible]할것

(나) 事業施行의方法 貯水池堤堰等에對하여는 當該豫定地의 實地踏査와設計方法을 [illegible] 設計下附의關係에 [illegible]

(다) 事業費 [illegible] 年度[illegible] 地主의[illegible] 工事費補助[illegible]

(라) 事業主體 [illegible] 事業主體로 [illegible]

(마) 有任勞力外도 地主가食糧[illegible] 人的[illegible] 事業을 實施하고 [illegible] 罹災民에게對한 [illegible] 步가 沃土化工事費 四百町[illegible] 五萬五千圓으로地主들은크게 [illegible]

土地改良에着手

五萬五千圓經費로

耕地를修繕코災民도救濟

一石二鳥의救濟策

【永登浦】경기도로부터의 가려한 한수해의 리재농민구제의 지주간담회에서 시흥군(始興郡)당국이 제안한한해구제소규모 토지개량사업시조사에 의하면 관내각면에 저수답(貯水畓)제언(堤堰)보(洑)우물등 약이십개소로서 이것을 개선하며 또는 논으로지목변환을 하기까지에는 약오만오천원의 경비를 소요하는데이것은 경비로써 사백여정보의광면적이 일약옥토로 화하야 영구히 한수해의 화근을 뽑아버리게 되는 동시 당장 엇더케할수 업는 리재민들을 구제하며 잇서서 가장 긴요한 시설이라해서 지주들은 크게 만족하는 동시 군조사에 빠진곳도 모조리 개선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여달라고 희망과 의견을개진하고하야 가급적 전반적으로 재조보고하시 하겟노라는 성의잇는 답변이 잇서서 지주들은 크게만족하엿다는데 이로써 리재농민들의 궁상이다소 완화될것이라고한다 (寫眞은始興郡地主懇談會光景)

行旅病屍

이십팔일아침여섯시쯤 본정서원이 관내 황금정(黃金町)오정목 이백오십일번지압길에 약륙십이상세가량되는 조선사람이 병사(病死)하고잇는것을 발견하고 시체는 경성부청에 인도하엿다

秋夜長、燈火미테 讀書의傾向打診

隨筆이斷然優勢、그다음은哲學

洋書엔會社科學類

독서의가을은 점점 기퍼간다 다시도라오지안흘 이가을을 마음껏 독서하고 생각하려고 장안의독서층은 누구나 다 책사의 신간서적목록을 드려다보고 잇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독서의내용 기피는 어떤것인가 이것을 본정통(本町通)의서점에서 드르면 화서(和書)에 잇서서는 수필(隨筆)이단연 제일위를 점령하고 제이위는 철학에관한서적이라고한다 그리고 사회과학서적은 전혀 팔리지안는다고한다 양서(洋書)는 이와반대로 사회과학서적이 제일만히 나간다고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독서계급의 동향(動向)을 알수가잇지안흘가 잡지는 개조(改造)중앙공론(中公)이 제일만히 팔리고 요사히 몰려나오듯이 나오는 문예잡지는 종류가 만허서 그런지 특히 만히팔린다는것은 업다고한다 그리고 그들을 분류하여보면 일반학생들보다도 차라리맨이 훨신만타고한다

"京畿金剛"冠嶽山 遊園地設置計畫

始興郡廳에서愛護

【永登浦】시외관악산(冠嶽山)은 경기금강(京畿金剛)이라고칭하야 그절연적경치는 필설로 다하거 어려운바이서 대경성의 일대원유지를계획식히고저 목하관민협력하야 착착그실시를 진행하며 잇서 민영사방조합의조직까지보게되여 수상년내로 약이십여만원의 막대한 경비로 녹화사업을 실시코저 확정하엿스며 시흥군 산림계(始興郡山林係)에서는 이명승지관악산의 보호를 위하야 만전을기하고잇는터이며 최근 동산재중에는 모처럼 재배보호하는 단풍기타 관상목을 함부로 채취하며 사방공사지를 밟어 문허터리는등 산림녹화 촉진상 다대한영향을 밋치게함으로 요소마다 직원을배치하고 그 처채의 철저를 기하는동시 등산객에게대한경고를하엿다고한다

日本體育協會動搖

平沼副會長은辭表提出

【東京電話同盟】伯林올림픽派遣軍을 總監한 外務省 一等書記官 森島氏의 爆彈聲明으로 큰센세이슌을 이르키고잇든데 日本體育協會는 마침내 動搖케되여 廿七日 東京市로부터 派遣委員會의 協力을 拒絶케되는 同時에 平沼副會長(올림픽派遣軍團長)의 辭表提出이 잇서서 體育協會首腦部는 廿八日早朝부터 丸之內中央亭에서 緊急理事會를 召集하는 一方 平沼會長의 留任策을 講究하고 따라서對京市問題의善後策에 對하야 協議한後 大島專務理事는 文部省의 岩原體育課長을 訪問하고 諒解를 要求한바잇섯다 이問題에 對하야大島專務理事는 다음과가티말하엿다 「平沼氏의 辭表는 確實히 接受하얏다 森島氏가 그러케 [illegible] 平沼氏는會長도 [illegible] 하엿스나 아직은 [illegible] 이라고 [illegible] 그러나只今은 [illegible] 이다 [illegible] 今日의 緊急理事會를 開催한 理由이다 그리고 東京市가 誤解하고잇는것은 참으로 [illegible]이다 그럼으로 이때에잇서 體育會自身도 크게 [illegible]가잇다」

日本體協理事會

【東京電話同盟】平沼副會長의 辭表提出로 因하야 召集된 日本體育協會理事會는 二十八日午後零時四十分부터 丸之內中央亭에서 開會하고 大島鄕 櫻井 小川 香山 高島 田端 淺野等各理事의 參集으로 [illegible] 平沼副會長의辭表를 承認할가 안할가에 各理事들은 [illegible] 意見을交換하고잇는바 會議는相當히 長時間에 亘할 모양이다

走路를變更한 A마라손

來月一日에擧行

서울運動記者團主催의 第十九回A마라손會는 來三十一日午後三時부터 光化門通네거리를 出發點으로 [illegible]往復約八里「코―스」로 (今回부터走路變更)하게되엿는데 參加希望者는 [illegible] 에서受付할터인데 參加希望者는 [illegible] 申込하기를바란다고한다

開城
中國料理講習會
▲日時 十月二十九、三十日間
▲場所 高麗女子館內
▲講師 鄭淳媛先生
◇講習資格 十六歲以上女子
◇主催 高麗女子館婦人俱樂部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못보시면大損! 日本서처음생기는 中學講義錄의特賣

全學期十二卷(合本定價十二圓)을 단지 三圓에大投賣

일어나오라! 獨學靑少年이여

只今까지 一個年卒業에十圓式의 會費를要하든 中學講義錄을單只三圓에 全學期全卷을 全部送本함 短期間에自由롭게 中學卒業의 學力을어들수잇는中學會는日本서 오직本會하나뿐、이犧牲的大壯擧에、全國中學講義界의人氣는本會에集中、申込殺到、後援激勵의書面祝狀이積積山積하는大盛況、申込은一日이라도速한것이有利、只今곳、特賣期間中에申込하시라。

入會의最好機 只今곳入會하라 [illegible]

全十二卷五千餘頁 破天荒的安價內容完全無比 最新式講義로가장平易한 文部省中學令에準據한全課目網羅

中學全科를網羅한 內容課目은左記와갓다

修身講義 國語講義 作文講義 漢文講義 習字講義 國文法講義 國語講義 地理講義 外國地理講義 滿洲國地理 日本歷史 東洋歷史 西洋歷史 現代史講義 動物講義 植物講義 鑛物講義 生理衛生 算術講義 代數講義 幾何講義 三角講義 物理講義 化學講義 英語講義 英文法講義 英作文講義 公民講義 世界の思潮

模範速成中學講義錄

申込과送金法

一、會費(講義錄十二卷)三圓 送料內地四十錢 海外五十五錢

一、[illegible]의會費에送料를添하야先金으로爲替又는振替口座(東京八四八三八番)에拂込할事 (振替用紙는어느郵便局에서나 親切하게二낭내드립니다、引手代用은 五分增)

形便上代金引換으로申込時는 送金着次第會員名簿에登錄 本會員證(會員章)을 添附하야講義錄全十二卷을全部同時에嚴重包裝急送함

入會後의特典各條

入會後講義錄工夫上不明한點은、學校先生에 質問하고同級으로써[illegible]라도自由로質問次第本會의서[illegible]가責任을지고親切하게解答하여드림니다

[illegible] 朝鮮日報讀者라記入하고申込하시요

東京・麴町・九段・三丁目二番

昭和模範速成中學會

振替東京八四八三八番

保險金受領廣告

一金貳千圓也

被保險人金[illegible]씨가 昭和十一年五月分에 貴社大阪支店[illegible]出張所長 金泰彦氏의勸誘에依하야 首記金額의 生命保險에加入하엿음고 第一回分保險料를支拂하엿던바 不幸히同年七月에 死亡에際하야는 同出張所長의 迅速한手續에依하야 [illegible]히支拂하여주엿음을 技에紙上으로 感謝의意를表함

大阪府三島郡吹田町[illegible]八〇

受取人[illegible] [illegible]

有隣生命保險會社 御中

祝 鏡城版 北洋地方紹介版

羅津 定置網 地引網 水底網 刺網業 北洋商會

富寧郡三海面漁業組合 理事 車基龍

太陽堂藥房 洪壽南

金斗元

金孟德

高太極

富寧郡水坪港 金圭赫鰮油工場

羅津郵便局長 大畠鐵造

泰安醫院長 李泰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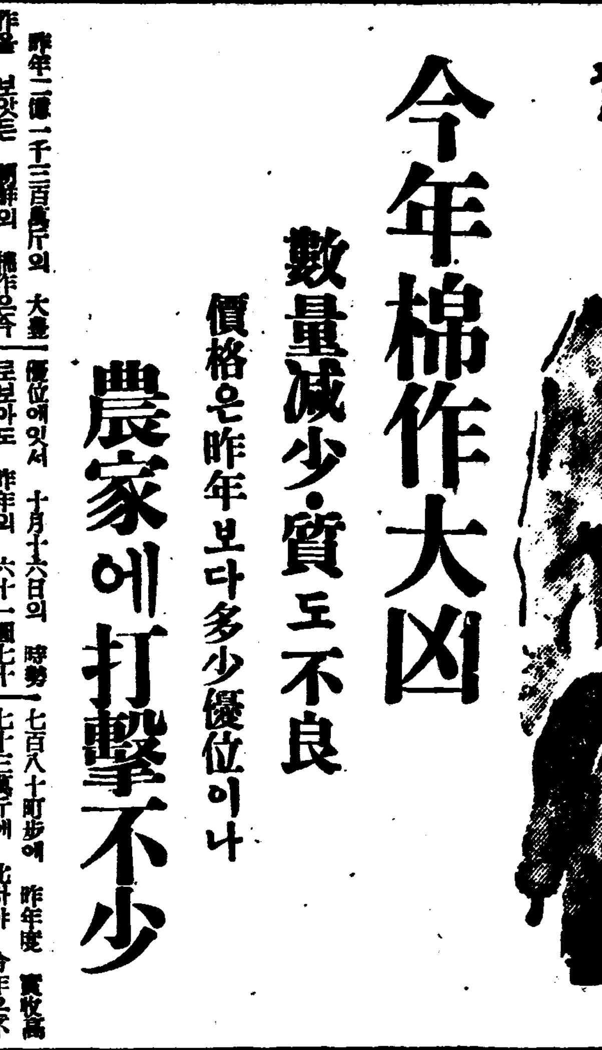
朝鮮料理 長春館

海東洋靴店 主 金圻洙

灣內聯絡船 大草丸 主 西村文郞

二水堂印房 兪永箕

産業



今年棉作大凶
數量減少·質도不良
價格은昨年보다多少優位이나 農家에打擊不少

昨年一億一千三百萬斤의 大豊作을 보앗든 朝鮮의 棉作은今年 豫想이 約一億五千萬斤으로 大凶作을보아 農村에 影響할바 不少할것은 豫想되든바이나 最近의 實情을보면 다음과갓다 今年의 棉作은 數量으로도 減少되엿고 質에잇서서도 不良하야 販賣에도 等級의 低下를 볼것이 不少할모양인데 當局의 調査로는 昨年은 一、二等棉이 收穫의 六割을 上하든것이 今年은 四割程度밧게못되리라고 한다 그리고 秋收가 도遲延되어共販市場도 約一個月間이나 늣젓는데 今年은 價格이 昨年보다 多少 優位에잇서 十月十六日의 時勢로보아도 昨年의 六十一圓七十四錢에 對하야 今年은 六十六圓五十八錢인것만은 幸이다 또 昨年은 自家用棉이 約一億斤이엇는데 今年은 얼마나 될런지 몰으나 昨年計算대로하면 市場에 出廻할 販賣棉은約五千萬斤에 不過할모양으로 昨年에 比하야 半減할터이다 그러타면 昨年보다 多少價格上有利한 點은 잇다해도 農家의金錢收入은大體로보아 亦是 半減되리이므로 農家의 打擊은 相當히 莫大할것으로 觀測되고잇다

江華人蔘大豊

數年來 急速度的으로 成績을 올리고잇는 江華人蔘은 今年에 採取할것이 數萬間餘라하며 蔘作에잇서도 最優良의 好成績을 일우고잇서 벌서부터 中間商人의 往來가 繁踏中으로 實買成績도 不況치는안흐나 開城本場에 잇서 白蔘統制의 紛糾로因한影響이 多少의 暗雲을 던지고잇다한다

七百八十町步에 昨年度 實收高 七十三萬斤에 比하야 今年은不過三十八萬斤의 激減을 보앗다

注意할點은 棉種子準備
品質不良、價格昂騰豫想

棉花凶作에 伴하야 一般農家에서 注意하여야할것은 明春採種할 棉種子의 準備이다 今年은 一般的凶作으로 下級棉이 만허진 關係로 棉種도 品質이 低下될것이 事實이고 따라서 그 數量도 몹시 減少할것이다 그럼으로 農家에서는 自家用繰綿時에도 注意하야 種子保管에措念치안흐면 明春種子不足의 念慮가 업지안타는것이다 그리고棉種子는 搾油等에도 需要가잇서그時勢도 相當히 高位에잇는데今春은 百斤大阪三圓八十錢이든것이 八月中旬頃에는 四圓으로 奔騰하엿섯다 今年의 棉作이 이처럼 凶作인 關係로 明春의 種子代는 意外로 高騰해질것이 只今부터 斟酌되고잇다

盈德棉花共販開始

【盈德】慶北盈德郡農會에서는지난二十六日부터 棉花共同販賣를 種即時 旱魃로莫大한 影響이잇처오든바 雪上加霜으로 去般姿風雨로 被害가 莫大하엿스나郡當局의 徹底한 指導奬勵로 僅僅挽回하엿는데 知品面新安市는每市日前日에 販賣를하게되엇다 明年度에는 더욱指導하야 棉物收入以上이되도록 奬勵할計劃이라고한다

災地高靈地方 棉花出廻殆無

【高靈】數次의 風水害와 온갓災害로 農作物의 被害가 莫大한 高靈은 棉花에잇서도 慘澹한狀態에잇다 이제棉花出廻狀況을보면 昨年十月二十日現在로 三十七萬斤이나 販賣되든것이 今年에는 不過千斤밧게 되지안흐며 總販賣豫想을보면 郡總作付面積

平北養蠶決算 百三十萬圓突破

【新義州】平北의 今年度 春秋蠶의 總生産高를보면
▲春蠶 二十四萬二千貫
▲秋蠶 十六萬四千貫
으로 總價額이 百三十萬圓에 達하는데 昨年에 比하야보면 産繭高에잇서서 二萬八千貫 價額에잇서서三十萬圓의激增을보앗다

朝鮮內織物需給
一億六千餘萬碼生産
需要의約四割에不過

朝鮮內의 織物類生産額은 近年朝鮮의 纖維工業의 躍進으로 昭和七年當時 八千八百九十九萬五千方碼의 生産이 十年에는거이 倍增하야 一億六千四百二十八萬七千方碼에 達하야 그金額도 四千三百七十六萬九千圓을示하고잇는데 이를 朝鮮內의 織物需給關係로보면 如左히 僅三十九%를 占하고잇슴에 不過하다 即

	推定需要 (千方碼)	生産高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이生産의 比率은 昭和七、八年의 三割이고 九年에는三十四%十年에는三十九%로되어잇다 이를 各織物別로보면 十年의 織物朝鮮內自給은 綿布는 四十六%를自給 麻織物은 七十一%絹織物四十五% 人絹織物十四%毛織〇、二%이다 即如左하다

	十年生産	十年需要高
綿織物	[illegible]	[illegible]
麻織物	[illegible]	[illegible]
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人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毛織物	二	[illegible]

高地帶開發急務 ⑦

副業

本地帶의 副業은 主로 林産副業으로 其他는 僅僅 澱粉製造麻布의 機織等이잇슴에 不過하다 林産副業에잇서서는 藥草山菜의 採取를 主하고故 木 木炭의製産 木工製品及杞柳의 採取等이 그다음이다

藥草

藥草는 거이國有林內에서産하야 國有林保護組合員은 原則으로 無償採取를 許容되고 잇다 그리고 그販賣는 從來 採取當時 又는 採取當年의 早春 所謂春窮期豫賣를 行하야 부질어시 不正仲買人에게 利益을 壟斷되어왓스나 昭和九年以降 道 郡及警察官憲이 서로協力하야 그採取의 奬勵及販賣의 指導를 行하고 山農共同組合國有森林保護組合에서 時에 資金의融通을 圖하야 徒賣를 防止하야서 山村民의副利增進을 期하고잇다

山菜

本地帶山野에는 到處에蕨薇其他山菜類가 甚히 豊富하고도 品質이 甚히 優良함으로 地元民의 食用에 供하는外 他地方에도 相當히 多量 販賣되고잇스나 調製方法이 完全치못하고 또販賣로 仲買商人에게 利益을 壟斷되는點이 不少한現狀이다

稔木

鴨綠江上流地帶産出 木材의 副産用으로 稔木의 需要는 年年平均四百萬本內外 價格入萬圓에 達한다 그리고 國有林保護組合員으로하야 금옷作케하고 組合에서 모아 司 其他民間木材業者使用의것은 販賣方法에 統制가업서서 中間商人의 搾取를 蒙하고잇는現狀이다

木炭

本地帶의 製炭事業은 資材가 甚히 豊富하나、運搬에多量으로 生産케 되지못하얏다 겨우 自家用 又는 惠山鎭其他小都市의 需要에 充當하는程度에不過하다 그러나 近時滿洲國에의 輸出이 漸次增加하고 또 交通의 便이 漸次열리고잇슴으로 製炭量 亦是增加의傾向이다

杞柳

長津 及 豊山郡의 河畔에는 多量의 杞柳가 自生하야 附近住民은 秋季 又는 早春 이를 伐採하야 六、七月에이 [illegible] 博、大邱方面에 搬出하야왓다 그리고 豊山郡은 郡農會에서 共同販賣를 斡旋하고 또購入者로부터 前金의 支出을하게하는等 相當히 採取者의 便宜를 圖하고잇스나 運搬關係上 흔히는 原料대로 搬出하고 겨우 長津郡에서 今年부터 杞柳細工講習會를 開催하야 加工한후 販賣하려고 計劃中이다 그런데 昭和九年度採取量四萬貫內外 價格二十錢乃至四十錢이다

木材加工品

本地帶에서는 楯類等의 幹材를 原料로하는 各種編物의 産出이 相當히 豊富하야 就中 濕笑敷物은 年産約五萬枚 內外 價格約 一萬五千圓이다 그리고 本地帶 一個年所要濕笑敷物約十萬枚에서 右地元生産五萬枚를 控除한 五萬枚는主로 [illegible]方面으로부터 移入되고잇서 그價格五萬圓內外에 達함으로 自勞力을 利用하야 自給을圖하야서 現金支出의 節減을圖하야 [illegible]의樹皮、荻의細工等의 年産은 約一萬五千圓이다

澱粉

本地帶에서 生産되는 馬鈴薯는 그品質이 澱粉의製造에 適合하며 操作이簡單하야 婦女子의 勞力消化에 恰好한 副業일뿐아니라 近時 澱粉의需要漸增에 伴하야 그産額이 增加되고 品質이 亦是改良되야 北海道産만에 못하지안타

麻布

本地帶는 大麻의 栽培에 適한關係로 本地帶婦女子는 古來로 麻布의 機織을 唯一의 副業으로하고 其製品은 멀리 南朝鮮方面에 搬出되어 歡迎되고 甚히 노파 將來益益有望하다

鑛産其他、

鑛産

由來 本道는 到處에 鑛床을 有하야 良質의 各種鑛物賦存은 無盡藏이라稱하고 其産額에잇서서도 昭和五年末五十八萬餘圓에 對하야 昭和十年度末은 實로 八百餘萬圓에 達하야 [illegible] 發하얏다 그러나 此等 大規模의 作業鑛區는 主로 交通의 便이 잇는 鐵道沿線의 各郡에 限定되고 高地帶에는 金、銀、銅外 特殊鑛物의 良好한것이 잇스나 交通의 便이 업서서 鑛物을 有利하게 處理하기 不能하다 極히 小規模의 水車精鍊에依하야 處理하고 又는 一部分 이를 荷牛車等에依하야 鐵道沿線又는 港灣所在地에 運搬치안흘수업는 實情으로 特히 含有量이 優位인것外 作業할수업다 그리고 또本地帶에는 其地質上으로 考察하야 各種貴重한鑛物의 賦存은 想像에 어렵지안흐나 交通 其他의 關係上 充分한 探鑛을하지못하고 未發見대로되어잇서 豊富無限한 天然資源도 死藏되어잇다 最近 五個年間의 同地帶鑛業狀況을보면 其增加率은 主로 交通機關의 整備에 比例하고잇슴은 注目할만하다

其他

[illegible]

고 日本海를 距하기 僅僅十里內外의 個所에 海拔千米突以上의 [illegible]이 重疊하야 分水嶺이되고 鴨綠江의 本支流는 此處에 發源하야 大槪西北으로 흘러 黃海에 注한다 이를 日本海에 逆流식힘에잇서서 一千米의 落差를 利用하야 豊富한 電源을 어들수잇서 이미 赴戰、長津兩水系에 잇서서는 이를 利用하야 現在 約五十萬키로의 發電을하고 또는 業者 許可되어 黃水院第一期工事에 依하야 不遠 二十五萬키로의 發電을할수잇슬뿐아니라 兩餘의 水系를 善用할때는 將來 數十萬키로의發電餘力이잇서 朝鮮及南滿洲의 工業原動力은 正히 此地帶에 잇다고하야도 過言이아니다

高地帶開發策
農山村經營法
自給經濟의確立

自給自足은 農業의 特徵으로 때로는 打算을 超越하는 價値가잇고 一面 이것이 農業의 强味이다 近時 內外地를 通하야 자칫하면 自給經濟를 輕視하는 傾向이만타 特히 本地帶와 如히 僻陬의地로서 또 人智가 아직 未開한 地方에잇서서는 交換經濟에 立脚함으로써 安定치 안흐면 안된다 그런故로 [illegible] 流入에 伴하야 細所한傾向이 생기게되엇슴은 寒心할바로 故에 食糧의 完全한自給을 期하고 併하야 生活必需品의自給自足을 圖함을 第一義로하고 金錢經濟를 第二義로하도록 그經營樹立을 期치안흐면안될것이다 그럼으로하여서는 左에準據함을要한다

(가) 食糧作物과 生活必需品原料作物은 반드시 自給할만한 程度로하고 그栽培를할것

(나) 其他의 生活必需品이라도 될수록 自作自給을 目標로할것

日本經濟의跛行 ⑥
一層顯著化를豫想

×

日本의 消費內部의 跛行現象中에 첫재로 들것은 政府消費의 跛行現狀일것이다 이政府消費跛行現象은 日本의 財政의 出發點이되는것이다

日本財政收支總額

◇……歲 出……◇

	軍事費 (百萬圓)	一般政費 (百萬圓)	合計 (百萬圓)
昭和五年度	[illegible](100)	[illegible](100)	[illegible](100)
同 六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一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歲 入……◇

	租稅 (百萬圓)	公債金 (百萬圓)	合計(其他를包含)(百萬圓)
昭和五年度	[illegible](100)	[illegible](100)	[illegible](100)
同 六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一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그리고 日本財政一般會計歲出을 一般政費、軍事費로 大加하면 軍事費의 跳躍的增加에 對하야 一般政費의 停頓이 顯著히 나타나고잇다 昭和五年度를 一〇〇으로 하면 十一年度는 軍事費는 二三九로 되어잇는데 一般政費는 十二億五千萬圓은 겨우 一二一을 示하는데 不過하다 昨今의 日本의 財政이 그初期에잇서서 時局匡救의 財政이라고도 稱하얏슴에 不拘하고 이미 그때부터 軍需生産에 主力을둔 것은 政府消費內部에 잇서서의 跛行的現狀에 或은 生産消費의 跛行現狀에 對하야서는 누구나 容易히 理解할수잇슬것이다

×

軍需生産이 主로 生産財生産과 一致되는데서 生産財와 消費財價格間에 跛行現象이 나타나는것은 當然한일이다 또 인훌레初期의 局部時勢의 激落 그後에잇서서의 必需原料 [illegible]

物價指數 (1)

	生産財指數	消費財指數
昭和五年	一〇〇〇	一〇〇〇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一年上半期	[illegible]	[illegible]

物價指數 (2)

	國內商品指數	貿易商品指數
昭和五年	一〇〇〇	一〇〇〇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一年上半期	[illegible]	[illegible]

×

그리고 上述한바와가티 跛行現象은 나가서 國內物價와 國際物價 사이에 跛行現狀이 나타나게 되엇다

그런데 消費財의 數字는 多少다른 意味을 示하는모양이다 生産財指數와 消費財指數에 對하야보면 跛行狀態가 나타나 [illegible]

×

그러나 上述한바와가티 一般的生産價와 一般大衆의 消費財의 跛行現狀은 나가서 生計費及賃金指數 (昭和五年一〇〇)

	定額賃金指數	實收賃金指數	東京小賣物價指數	生計費指數
昭和五年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一年上半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定額賃金指數의 微增傾向에도不拘하고 生計費指數及 小賣物價指數는 相當히 急速한 [illegible]

×

以上과가티 日本經濟에는 幾多의 跛行現象이 인풀레의 展開에 隨伴되어 잇슴을 [illegible]

露香時勢 日米爲替 貿易 國際收支

	片	弗	百萬圓	百萬圓	百萬圓
昭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擴大軍需이 인플레의 具體化로 上述한바와가티 跛行現狀이 더욱 明確한 事實로 되어잇다 그리고 各方面의 跛行現象은 그程度가 次第로 强烈하여질을따라 그가 擴的問題에서實的問題에까지 蔓延될 危機를 內包하고잇다 最近問題의 稅制整理案도 財政의 內部에 醸成되고잇는 跛行現象에 對한 調整力으로 생각된다 그러고 跛行現象에 對한 調整力은 恒常 廣義의統制經濟이데올로기下에 發動될것이다。(終)

無水『알콜』計畫
木材로七萬二千石製造

燃料國策에依한 朝鮮의 無水알콜의 製造計畫은 大體 東拓을 中心으로하는 特殊會社를 設立하야 이에 當케하기로되어잇는데 朝鮮은 木材를 原料로하는 關係上 그限度가잇서서 쇼ㅣ라ㅣ法에依하면 大體 二萬四千石單位의 工場을三單位로設立하야 七萬二千石의 無水알콜을 製造하게될貌樣이다 그런데 右會社는 木材를 原料로하는外 稻穀馬鈴薯等을 原料로하는 製造도 行할豫定으로 大體 四十萬石을 目標로하고잇스나 此等의 集貨方法、利用方法等에對하야 아직 相當한 研究를할 餘地가잇슴으로 이便의 計畫은 아직 決定되지안햇다 그리고 東拓이 買收하기로되어잇는 쇼ㅣ라ㅣ法의 파텐트는 目下 契約條項에 不備한 點이잇서 交涉中인바 그러고 收得수잇슴은 確實하다 그리고 工場一單位에 要하는資金은 約百萬圓임으로 右會社의、資本金은 工場單位數로決定하기로되엇다

京春트럭活況

京春鐵道 [illegible] 가九月에 買收하야 十月一日부터營業을開始한 트럭網은 走行 新羅一千四百料으로 現在約百台의 트럭을 運行하고잇는데 各路線共히 同社鐵道線三陟開發、江陵道水害復舊工事等의 諸材料運搬을 中心으로 豫想外의 活況을 呈하고잇슴으로 近間增車하리라한다

日窒寶石工場操業

日本窒素의 日窒寶石興南原石工場은 이지음 試驗操業을마치고 本操業에 着手하엿는데 現能力은 日産五十升리의 루비ㅣ十個인데 年內에는 第一期計畫에 基하야 日産九十升리의 原石百個까지 擴張하기로되엇는바 루비ㅣ外에 사파이야、쪽파ㅣ스等도 製造하리로 製品은 一部를 裝飾品으로 其他를 軍需工業原料로 賣却하기로되엇다 한다

單肥를廢하고 配合肥料를使用
金組와農會의方針

配合肥料의 普及에對하야서는 總督府는 朝鮮農會의 肥料配合을 積極的으로 行하는等 兩三年來 注力하고잇는데 金融組合의 肥料共同購入은 從來 單肥本位의 購入을 中心으로하야 配合肥料를 主로하려는 總督府의 方針에 違背함으로 일즉이 農會側과 折衝中이든바 二十七、二十八兩日의 肥料配合協議會에서도 金組側과 農會側과 協議한 結果 今後는 可及的으로 配合肥料를 使用키로 兩者의 意見이 一致를 보게되어 將來는 金組關係의 肥料購入斡旋은 모다 農會에 一任할 意向이라

日本曹達의『마그네』原鑛 朝鮮에서供給

日本曹達의 多角經營化方針에 基하야 金屬마그네工業은 同社新潟工場에서 起業하기로되엇는바 原鑛을 朝鮮으로부터 移入하기로되야 目下 某社와 購入商談中이라한다

農會의肥料配合
單肥廢止方針으로 前年보다十萬叺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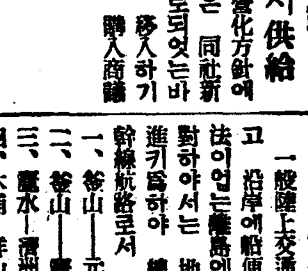
朝鮮農會의 今年度 春肥配當으로 豫定數量은 未定이나 單肥의使用 昨年春肥은 七萬八千叺의 配合肥料計畫은 各道로부터의 申込이 아직 모이지안햇슴으로 斡旋을 可及的 적게할 方針임으로 今年은 水害旱害 其他의 障害는잇스나 昨年의 實績二百六十萬叺보다 十萬叺程度의 增加를 豫想이다

六道蠶業家로 懇談會開催
去廿日全州에서

【全州】全州養蠶組合會主催의南朝鮮六道 養蠶家懇談會는 廿日午前十時부터 全州府相生町全州養蠶組合聯合會事務所에서 六道代表、三十餘名集合으로 開催되고 今後蠶種、産繭販賣、飼育方面에對한 充分한 意見交換을 陳述한후 閉會하엿다고한다

沿岸幹線航路에 優秀船配屬

一般陸上交通施設의 利便이업고 沿岸에船便에依하는外에 方法이업는樣島에對한 航運施設에 對하야서는 地方産業經濟를 促進키爲하야 總督府에서는 沿岸幹線航路로서
一、釜山―元山
二、釜山―麗水
三、麗水―濟州島
四、木浦―群山
의 四航路를 認定하고이에優秀한(二百噸以上、航海速力 十哩의鋼製貨客船)을 配屬케하야 優秀船建造에 際하야서는 一定條件下에 助成金을 交付할方針을 決定하고 遞信局을 中心으로서 具體的 研究를 하기로되엇다



問 水飴製造를 計畫하오니 斯業界의 刊行物 其他에 對하야 下敎하시오(咸南興南邑東興里一商生)

答 近年에는 移入飴는 업스나 平壤船橋里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製 黃金飴라고 하는것이 大部分입니다 取扱店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三菱商業株式會社 京城支店 同觀水町德永商店等이 잇습니다 그런데 同業者의 機關紙는업습니다

問 토마토써ㅣ진의 用途와 市內販賣店을 下敎하시기를 仰望합니다(市內故知生)

答 朝鮮東海岸에서나는 鰮魚와 토마토를 조려서 만든 罐詰인데 用途는 勿論食料品입니다 販賣店은 各百貨店食料品部에서도 살수잇습니다

日用商品市況

漢藥 (一斤) (京城廿七日現在)

開城人蔘(一斤)
一等 [illegible] 二等 [illegible]
松蔘은統制會社關係로 價格協定이안되엇다

天麻、赤箭、白朮、蒼朮、狗脊、巴戟、遠志、仙茅、玄蔘、地楡、丹蔘、紫草、白蘞、黃連、胡黃連、黃芩、蘗荏、柴胡、前胡、防風、羌活、獨活、升麻、苦參、白鮮皮、延胡、貝母、龍膽、細辛、白芷(唐)、川芎(土)、良薑、白豆蔻、砂仁、益智仁、肉豆蔻、破古紙、鬱金、莪朮、香附、藿香、蘿蔔、茴香、荊芥、薄荷、紫蘇葉、蘇子、茵蔯、益母草、胡蘆巴、蒼耳子、麻黃、木賊、燈心草、生地黃、牛膝、白葵花、決明子、車前子、連翹、續斷、大黃、附子、大戟、白附子、南星、半夏、生薑、沙參、白扁豆、五味子、使君子、瓜蔞仁、天花粉、葛根、天門冬、白何首烏、通草、木通 — 各品價格 [illegible]

錦山人蔘(一匣)
一等 [illegible] 二等 [illegible] (以下單位斤)

桔梗、黃芪、知母、黃精、忍冬、金銀花、桂皮、肉桂、桂枝、辛夷、沈香、丁香、乳香、木香、大皮·腹鳥、烏藥、沒藥、麻黃、胡桃、杜仲、厚朴、枳實、枳殼、巴豆、梔子、山茱萸、金櫻子、郁李仁 — [illegible]

五加皮、枸杞子、牧丹(土)、覆盆子、白茯苓、上白伏神、琥珀屑、竹茹、竹瀝、乾薑(土)、白芥子、龍眼肉、蓮肉、神曲、麥芽、五倍子、鹿角膠、龜甲、朱砂、硼砂、石膏、滑石、硫黃、白礬、甘草、從蓉、當歸、熟地、澤瀉、枳殼、鹿茸、熊膽、麝香、竹瀝、檳榔 — [illegible]

=天一藥房調査=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五三四	忠南洪城郡龜項面	十月十日	京城府旭町代表者 坂本治三
一〇八七七	全南谷城郡梧谷面	同	京城府平洞代表者 中川富一郎
七五〇〇	全南光陽郡鳳岡面	十月十二日	同靑葉町 韓弼德
一〇〇四五	咸南定平郡朱伊面	十月十二日	同花園町代表者 田阪園一
一一一二八	黃海平山郡西峰面	十月十三日	咸興府黃金町代表者 李軒京吉
			順天郡順天邑 [illegible]
			同萬歲町 朴富雄
			金化郡金化面代表者 宋彦弼
			京城府松峴面 丁奎碩

◇共同鑛業代表者改正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三九六	全北金堤郡萬頃面	十月十日	代表者를白光國으로改定함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四九九	忠南唐陽郡化城面飛鳳面	十月九日	韓允教任意脫退함
一〇一六七	京畿楊平郡江上面江下面	十月十日	高敎淳任意脫退함
八〇〇八	平北龍川郡楊上面	同	中村文任意脫退함
一二三二一六	同	同	[illegible]
九三九六	全北金堤郡萬頃面	十月十三日	白南圭任意脫退함
九六六七	全北完山郡[illegible] 南二面	同	[illegible]

雙虹舞 【25】

方仁根 作
金奎澤 畫

꽃에바람 (三)

「누구냐고 그러케 따 젓눈을 하시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매개 이사람하고 햇스면 조켓다고 나혼저 공상하얏든 것이지요」

「글세 그러니 누구에요」

「아 이거 섯불리 말을 끄내다가 야단낫습니다그려」

「그럼요 말슴아니하시면 큰일납니다」하고 경주도 약간 부끄러운듯 얼굴을 붉히엇다。면준은 정색을하며

「글세나는 두분사이에 비밀로 무슨언론이 잇지나안흔가하고 눈치만 보는데 영 감감소식이어서 아주갑갑하든군요」하고 말하엿다。

「아이그머니 누구하고 제가뭘 그래요」

「아니글세 그럴듯한데 시칭을 따시니 나도나지마는 다른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수꺽기가튼 말슴입니다 대관절 누구에요?」

「공연히 아시면서 그러십니다그려 정히 그러시다면 그만둡쇼」

「아이정말 몰라요 이런기맥힐데가 어대잇서요」하고 경주는 반쯤웃고 반쯤 놀래며 입을따버리고 눈을 크게 떳다。

「하하하 아니 우리가 그러케 둔감이요 소경인줄아십니까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속입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대 잇습니까」

「아이구 그선생님 큰일나겟네」

「선생님이 큰일내겟습니다 재몽친을잘하셔도 너무 서칭을 잘 하시는데」

「호호호 그럼 제가 누구하구 사랑한단말이에요」

「사랑까지는 아니가고 아마삼랑쯤은 되시는모양이든데」

「그럼 저-혹시……」

「네 바로 그사람입니다」

「호호호 선생님도 퍽 흉치하서」하고 경주는 눈을 흘기엇다。준도 우스며

「두분이다 내숭하서서 여간이아니랍니다」 하고 경주의비밀을 건드리엇다。

「대관절 [illegible]」

분은 남자이래도 얌전하고 버려지잔는 양반이라 흉볼스럽고 말합쇼 다압니다 다알아요」

「아이구 그럼 평선생 말슴이에요」

「네 바로 그광훈씨겟지요 방망이 두번맛는소리가 납니다」

「떠마젓다말이지요 그러나 안이에요」

「안이면 뒤집죠」

「아이참 기막혀라!」

경주는 대개 그러러니하엿지마는 막상듯고보니 놀납고도반가웟다 저편광훈도 자기에게대한태도가 조커니와 자기도 그한테생각을 만히가지고 잇섯스마는 아직이라는 진행은 업데 벌서 다른사람이 이러케까지 생각할줄은 몰랏다。

「내언젠가 작년인가 언젠가

훈씨의 맘을떠보느라고 심적휘 돌아서 물어봐스더니 광훈씨도 아주경주씨한테 혹햇읍되다」하고 능청을피엇다。그것은 엉겅난 거즛말로 윤호와 태식과짜고 준이 수단으로 말하는것인 줄 모르는 경주는 고지를 듯고 기뻐하엿다。사실 그러타면 진출할 필요가 잇다고 경주는 문득생각하엿스나 경주에게 걸리는것은 역시 면장의 딸이엇다。광훈이 면장의 집에잇다는 것이 그딸 은명과 한집에 잇다는것이 가장 불쾌하고 위험하엿다。그러나 또한편 생각하면 면장집에서 광훈을 우숩게 생각해서 사위를 삼을것갓지안코 또면장딸이 어리고도 교만하고해서 광훈과 상대가 될것갓지 안흐면서도 걱정은 되엇다。그래서 밤이면 광훈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낫에맛나면 반가웟다。언제나 광훈의편에서 먼저 맘이잇기를 바라고 잇섯든것이다。경주는 천연스럽게

「그건 잘못보섯서요 지금 그린선생은 반한데가잇는데요」하고 민선생의 말을 떠보앗다。

「면장딸 말이지요 그건 문제도 안됩니다 면장딸은 벌서다른데 [illegible]」

「저말이에요 [illegible]」

경주는 반가운 소식이나 못